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목차

도전 성공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나	p.4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	p.7
북한에서의 삶	p.11
내 인생의 행복 찾기	p.16
썩떡	p.23
내 이름은 000입니다.	p.28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p.34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p.38
시간이 약인가봐요.	p.43
북한에서의삶,탈북과정및전라남도지역사회성공정착과정.....	p.50
한국, 사회 정착기	p.54
자유를 찾아서	p.56
꿈	p.62
나의 삶에 포기란 없다.	p.65

목차

ooo 펜션에 무지개 뜨는 날	p.68
저는 행복한 oo시 공무원입니다.	p.72
참희망이 된 한국생활	p.75
밥 한 그릇	p.77
우리집 가족사	p.81
자유민주주의 한국	p.83
나의 여정	p.84
남한 정착기	p.86
oo을 사랑하는 여자	p.88
과거 현재 그리고 나	p.90
나의 제2의 고향 oo	p.93
노력은 성공의 비결	p.95
살기좋은 나라 , 대한민국	p.99
함께라면	p.102



도전 성공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나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대한민국에 국민이 되어 전라남도 OO에서 살면서 지금 현재 전라남도의 평범한 소상공인으로써 자영업을 하나가고 있는 한국 정착 8년 차 새터민 OOO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특별시 평양시에서 태어나 초, 중, 고, 대, 군복무(8년)까지 하고 과감하게 탈북을 한 사람입니다.

북한에서 저는 직업군인인 아빠의 밑에서 철저한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충성을 맹세하며 우리 한민족인 남한을 적대국으로 총까지 겨누고 있었으며 철저한 정치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북한에서의 나의 10대는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행사에 동원되었고 20대에는 남한에 총대를 겨누고 있는 삶이었고, 30대에는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될 꿈으로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드라마와 비디오 매체를 접하면서 점점 북한과 한국의 진실과 거짓을 알게 되었고,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무조건 한국 가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모험과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도전 성공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나

탈북은 저의 목숨을 걸어야 했으며 사랑하는 저의 부모 형제를 매장시켜야 했으며 저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그분들과 맞바꾼다고 말해도 거짓말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국드라마를 봤다고 저의 친구는 공개총살 당하는 사회이기에 제가 한국을 오면 저의 가족을 가만 놔둘 리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2015년 11월 30일 대한민국에 첫 발을 디딜 수 있었으며 2016년 4월 20일 당당히 대한국민의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OO에 첫 저의 대한민국의 정착을 하기 위하여 집을 풀어놓았습니다. 정착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또 밤에도 일을 해야 했고 분명히 한민족인데 분단된 세월만큼 하늘과 땅차이인 문화와 언어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뀌야 했습니다.

저는 새우양식 조기선별 삼성 하청업체, 가사도우미, 알바를 해가며 경제적인 안정을 먼저 가지며 한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배워가면서 적응과 정착을 해나갔습니다.

때로는 북한에서의 문화차이와 언어 말투와 마인드로 따가운 시선도 경험해야 했고 너무 몰라서 혼자 배워가면서 돌아서서 통곡하며 울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제가 도전하고 성공하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아니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도 있고 어떤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사회의 진실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치의 부끄럼 없이 열심히 살다 보니 한국 정착 2년 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이쁜 자녀도 낳으며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중요한 성공의 발을 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출산 6개월 만에 다시 제가 해야 할 일과 잘해나갈 수 있는 일과 이 사회의 성공된 사람이 되기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도전 성공 가치 있는 삶 그것이 나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육아를 하면서 아기를 재워놓고 베란다에서 2년에 걸쳐 연습과 유튜브를 통하여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배움과 끈질긴 노력 끝에 전문 수선가로서 기술을 완벽하게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과 쉼 없는 도전 끝에 드디어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의 근 8개월의 심사와 실습과정을 거쳐 3번에 거친 면접 심사에 당당히 인정받아 2022년 8월 00에 저의 인생의 첫 가게를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 전국에 3명밖에 지원 안 해줌)

전라남도에 처음 있는 사례였죠. 개업만 한다고 가게가 운영될 수도 없고 또다시 대표로서의 자질을 배워나가고 또다시 도전하는 힘들고도 보람된 과정을 거쳐 지금은 당당히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떳떳한 나의 성공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뿐만이 아닌 이 사회의 도움이 되어야 했고 북한사람 최초로 00중학교(아들학교) 학부모 회장으로 00교육청의 연합회 의원으로 우리 전라남도 교육 발전과 교육 통합을 위해서 또한 지금 가장 밑에서 힘든 우리 다문화 한부모 센터나 불우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1년째 하고 있으며 제가 받은 한국에서의 전라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적지만 가장 소소하게 성공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깊숙이 한국 사회에 스며들어 가장 행복한 가정과 사업과 또 저를 인정받는 사회적 직위도 이루어 냈습니다.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은 한국인보다 더한 한국인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로서 사업가로서 손님들에게 인정받고 00전라남도 교육청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제2의 연평해전 때 북한에서 같이 총을 겨누었던 사람입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잠을 설치며 다시 한번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굳게 맹세해 봅니다.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

저는 1997년 9월 23살에 탈북하여 2006년 1월 32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전남 OO에 정착해 생활해 오면서 주변의 편견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온갖 벽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OO에서 나서 자란 토박이보다 더 OO여자가 된 상OOO홍원장 OOO입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농민의 딸이라는 이유로 태어난 순간부터 학교, 학급 안에서 정해진 제 신분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속 깊이 분노했고 두만강을 건너기 앞서 다시는 못 볼 부모님과 동생들 때문에 너무나 애통해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또한 만삭의 몸으로 출산 몇 시간 전까지 주유소에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도 앞으로 펼쳐질 내 삶의 무지개 목표가 있어 온 열정을 다해 힘을 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는 “너의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이야?”는 질문들이 유독 중요했습니다.

부모가 되니 저의 모습으로 바뀌 생각해 볼 때, 나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가 되는 것이 좋을지 또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

부모님에게나 저 자신에게는 “이미 정해진” 사회적인 역할이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더 크고 자유로운 꿈과 미래를 꿈꾸는 마음으로 입국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받아준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한에 정착해 생활해 오는 동안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나에게도 이런 환경” 주어졌더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은 취업률, 치솟는 물가, 무한한 경쟁 분위기 등 어려운 사회 여건들은 물론 많지만 이를 두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불평에 대해 “나라면, 좀 더 다른 노력을 했을 텐데.”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어려운 사회 여건을 불평하면서도 저와 같은 북한이탈 주민을 자신보다는 한 단계 낮은 계급의 사람으로 취급하는 부정적인 편견과 문화적 차이를 통한 마음의 벽을 경험하면서도 “더 나은 노력”을 고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온 고향과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은 달리 해결되지 못했고, 더 나은 세상에서 부모, 형제와 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 또한 커져갔지만, “늙은 소나무는 자리를 옮길 수 없다.”는 완강한 아버지의 말씀 앞에 통곡하면서 제 삶의 방향을 확고히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직접 만지고 모실 수는 없게 되었지만, 내 주변의 또 다른 어르신들을 내 부모 대하듯 모시고 섬긴다면, 나의 이런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을 타고 북에 계신 내 부모에게도 전해 질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 OO에 정착해 생활하면서 여전히 극복할 수 없는 것 중의 한 가지는 남한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과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출발선”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운은 곱하기”라는 말처럼 내 노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시작하더라도 저의 사소하고 꾸준한 노력이 이어진다면 “최종도착지”는 분명히 다를 것이며 내 노력이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노인시설을 운영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을 때, 그런 저를 두고 “네까짓게? 네가 그걸 해내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북에서 건너온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조차 저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저는 “꼭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선 운전면허,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에 도전하여 행정력을 키우고자 했지만 막상 접한 현장에서는 “북한사람에게는 돈줄을 맡기지 않는다.”편견에 맞닥뜨렸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대형 종합병원에서 간호실무경험을 쌓기 시작했으며, 사회복지학과 학업을 병행 하기 위해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이직, 사소한 메모까지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을 강점으로 차츰 인정받아 센터에서 도맡아 하는 업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처럼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던 남한 생활 중에 너무나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서일까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선고로 인해 잠시 약해지는 시기도 있었지만,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는다.”는 말처럼 투병은 제 삶에 또 다른 문이 되어 주었고 이전에 알아온 세상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투병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회복지학 전공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노인주간보호센터를 거쳐 노인요양시설에서 실무경험을 시작하게 되면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역 내 부동산, 경매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요양시설운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그토록 찾아 헤매다 보니 실제로 운영해 볼만한 노인시설을 발견, “OO 평화의 집”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3년 후 “상OOO홈”으로까지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통일을 위한 작은 발걸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6년 후 “OO평화의 집”은 동료사회복지사 겸 시설장님께서 전담으로 맡아 운영하고 있고 “상OOO홈”은 저의 책임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까짓게”하고 저의 꿈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의 노인요양시설과 여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변화하였고, “우리보다 낮은 계급” 이라던 남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도 이제는 저에게서 조금 멀어진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OO지역 동료 시설장님들과도 남북의 출신에 관계없이 서로 밀고 끌어주는 한가족이 되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꿈꿨던 도착지에 다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저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종착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의 역할과 존재가 남북에 관계없이 온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누군가의 “더 나은 삶”에 아주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두고 오늘도 제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의 진심을 다하는 것이 앞으로 멀지 않은 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의 삶

어려서 일찍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어머니와 동생 둘을 챙기면서 살았습니다.

끼니 걱정에 배움과는 멀게 열심히 살았지만 늘 부족한 경제 상황과 제한 적인 삶에 결국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정착 과정

2014년도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정착기관 (하나원)생활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나원생활 당시엔 꿈에 부풀어 밖에 나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 꿈들은 꿈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 혼자 부딪쳐야 할 상황에 두렵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막막했다. 그러다 문득 “그래 난 할 수 있다! 한국오기까지 목숨도 걸었는데 말이 통하는 여기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는 고향사람을 만나 구인구직 신문 보고 살고 있는 OO를 떠나 OOOO중공업. 하나원 수료 2주 만에 첫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다.

타지에서 생활은 쉽지 많은 않았다.

첫 월급 받기 전이라 첫 달 생계비 49만 원 정도 들어와도 통신비, 임대료, 관리비, 등 납부하면 남는 돈 거의 없었다.

월세방 구하려니 무일푼인 나와 남자친구(현 남편)는 같은 기수분 집에서 한 달간 얹혀살다가 팀장님께 월급을 가불 받아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 창문도 없는 습기 가득한 지하 단칸방에서 재활용 매트리스 주워 쓰면서 옷이 마르지 않아 드라이기로 말리다 과열돼 녹아 버리면서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악착같이 살았다. 돈 많이 벌고 싶어 타지로 가서 직장 생활하며 쉬는 날엔 막일 고깃집 알바, 이삿짐 옮기는 일, 신호수, 닥치는 대로 해보았지만 1년간 안 쓰고 절약해도 통장잔고는 300만 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들어 적게 벌더라도 OO로 가서 꾸준히 오래 일 할 수 있는 곳 알아보자! 1년간에 타지 생활정리 하고 OO로 돌아왔다. 내려오자마자 하나센터 도움으로 마침 요양보호사 자격증 양성교육 지원사업 있어서 지원받아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동기들은 나이 있으신 이모, 엄마뻘 되시는 분들이셨다.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나중에 취득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어떤 자격증 취득에는 나이 제한 없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한 결과 단번에 합격했다! 기뻐다! 할 수 있구나. 합격에 맛을 보니 이번엔 운전면허증도 따고 싶어 도전했다 역시! 이번에도 필기, 실기 단번에 합격!

열심히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 마음가짐이 오늘의 성공한 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도 당당히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날 하나센터 상담사 선생님이 전남 OO OO공원에 위치한 사랑의 구름다리 개통식에 한 달 동안 공개 모집하는데 선정된 예비 신랑, 신부의 특별한 결혼식을 지원해 준다면 지원해 보겠냐고 연락 오셨다.

둘이 만나 결혼식 올리고 싶어도 비용이 버거워 포기한 상태였는데 이런 좋은 소식 듣고 신청하여 선정돼서 특별한 결혼식과 혼인서약도 하고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신혼여행도 다녀왔다.

▶지역사회 성공 정착과정

타지 생활 하고 로 돌아와 자격증도 취득했는데 취업하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또다시 하나센터 상담사님께 얘기드렸더니 알아봐 주시고 나서 연락 왔다.

3교대 근무인데 일단 면접 보라고 하셨다. 면접보고 이력서 제출하고 바로 회사에서 5일간에 교육받고 근무하기 시작했다. 당시 계약직으로 4년간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운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다. 처음에는 밤잠을 잘 수 없는 3교대근무가 너무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직서 썼다 지웠다 반복했다.

‘그래 1년만 버티자! 퇴직금도, 취업 장려금도 수령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통장에 쌓이는 잔고를 보며 피로를 풀었다. 버티고 버텨서 벌써 10년 차 되었다.

어느덧 회사일에 적응하다 보니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다가 사회복지사 2년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회사 다니면서 대학교 생활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해냈다.

정규직직원 되고 2년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사이 사랑스러운 아기가 우리 부부에게 찾아왔다.

우리 부부는 열심히 아끼고 모은 돈으로 한국에 온 지 4년 만에 새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새집으로 이사할 때도 이사비용 아끼려고 임신 6개월 된 몸으로 퇴근 후 남편과 조금씩 이삿짐을 옮기면서도 몸이 힘들지만 행복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새집에 이사 와서 사랑스러운 아기 태어나면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다고 남편이 기뻐했다. 이사 온 첫 날밤 남편과 도란도란 옛날 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한통에 남편전화.

“여보 나 지금 많이 아파.” 평소 장난기 많은 남편이라 믿지 않았다. 병원으로 119타고 이송 중이란다. 안간힘 다해 제일 먼저 나에게 전화했던 남편...

고객님과 상담 중이던 나는 고객에게 양해구하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인계하고 급히 응급실로 갔더니 외상외과 과장님 하시는 말씀 생존 확률 20%란다. 그 말 듣는 순간 선생님 “불쌍한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곧 태어날 아기도 있고 아빠 없이 혼자 키울 자신 없어요.” 불구 되고 나를 못 알아봐도 눈만이라도 뜨게 살려만 달라고 통곡하면서 부탁드렸다.

회사에는 [가족병가신청] 하면 3개월까지 쓸 수 있다. 당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된 시기였지만 임산부인 나를 담당주치의님께서 잘 챙겨주셨다. 너무 고맙고 감사했다.

남편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상황이 안 좋단다. 무의식 중에도 소리는 들으니 남편한테 계속 얘기하고 말 걸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단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고 눈을 떴다.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만삭의 몸으로 남편수발 들었다. 오늘날 남편이 회복되고 일상생활 할 수 있기까지 나 혼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도 사연 듣고 응원에 글과 많은 도움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주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편의 건강도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고 그 사이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났다. 아직은 사고 후유증 있지만 일상생활은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북한에서의 삶

남편도 틈틈이 대형면허, 덤프트럭 등 여러 자격증 취득하고 현재는 용접사로 또 한가정의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첫째 출산 후 출산휴가, 육아휴직 마치고 복직해서 열심히 맛벌이하다가 또다시 사랑스러운 둘째가 우리 곁에 와줘서 우리 가족은 네 식구 되었다. 지금 와서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보면 건강한 정신상태가 나의 인생을 만드는 것 같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다!

무엇이든 흔들리지 말고 끈기 있게 하다 보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저의 탈북 및 정착 과정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 찾기

- 하염없이 그리운 내 고향!!

내 고향은 평안남도 OO군으로 평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탄광지입니다. 저는 그곳 탄광지에서 4남 3녀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연료창고 일을 하였고 어머니는 인민반장을 수십 년간 하셨습니다. 늘 관대하고 남에게 베푸는 따뜻한 성품으로 이웃들이 공산주의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평판이 좋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렇듯 저희 가정은 나름대로 평탄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그 덕에 평성 경제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인근의 탄광을 관리하는 보위대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1993년 12월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1998년 25세 되던 나이에 106명을 거느리는 부문여맹위원장(부녀회장)을 맡아 무난히 일을 수행하였고 2001년에는 154세대를 거느리는 지구반장(동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장들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였지만 성실하고 똑소리 나는 일처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란했던 가정은 2003년 남편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사망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10살이던 딸과 5살 된 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슬픔보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섰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의무적으로 취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전문 학교를 졸업한 경력을 살려 탄광 통계원(회계원)으로 발령받아 2년 정도 근무 하던 중 기업소의 통합으로 두 개의 기업소가 합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소들은 쌀 구경을 하기 힘들었지만 저희 탄광은 특성상 종종 배급이 나왔기 때문에 배급소 출납원으로 일을 하면 밥을 굶을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계원으로 일을 했던 경력이 이어서 나름대로 힘 있는 간부에게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털어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그 간부는 돈만 받아 챙기고 입을 싹 닫는 바람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새롭게 돈벌이를 시작해야 했던 나는 2007년에 어린 두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고 친척이 있는 OO도 OO시까지 돈벌이를 하려고 떠났지만 거기서도 생각처럼 돈벌이가 없어서 끼니를 굶다시피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당시 먹고살 유일한 방법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3월 서슬 퍼런 국경경비대원들의 눈을 피해 꾀꾀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 북한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중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과 풍족히 살아갈 생각만을 해왔으나 막상 중국에 도착해 보니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발전된 자유로운 생활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고 말도 통하지 않아 어디 갈 곳도 없었지만 이를 악물고 닥치는 대로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갈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자식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2009년 OO북도 OO에 있는 브로커에게 아이들을 찾게 해 달라고 이민페 2000위안을 보냈으나 화폐개혁 하는 바람에 보낸 돈이 공수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OO시 브로커에게 2000위안을 건넸는데 자식들을 찾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이번에는 무산 브로커에게 2000위안을 보내면서 자식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을 하였지만 찾아가 보지도 않고 딸은 행방불명되고 아들은 꽃제비 생활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만 챙겨갔습니다.

자식들을 찾지 못하게 된 나는 죄책감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10년 5월에 OO시에 있는 또 다른 브로커에게 사정을 하여 아들, 딸을 OO으로 데려오면 돈을 준다고 약속을 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6월에 딸이 OO으로 오게 되었고 딸에게 브로커 비용을 보내주었습니다.

중국에 넘어왔을 때만 해도 중국에서 번 돈을 자식들에게 보내주면 자식들이 북한에서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곧 내가 사회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천진난만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화폐개혁과 관련해서 책임을 물어 담당자를 총살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의 통치자들과 사회주의에 대해 남아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듣고 북한의 통치자들과 사회주의에 대해 남아 있던 마지막 미련마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에서 아무리 힘들게 돈을 벌어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북한정부의 화폐개혁 때문에 그리고 브로커의 사기에 번번이 돈만 날리자 나는 북한 사회주의는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자녀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오랜 노력 끝에 2010년 12월 자녀들과 함께 탈북을 하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 자유의 품에 안다.

2011년 1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무사히 꿈에 그리던 한국 땅에 도착하였고 하나원을 나온 후 한국에서의 정착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마음가짐과 목숨 걸고 한국에 온 만큼 자식들에게는 추위와 배고픔을 물려줄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식당 종업원 시작으로 목재가공회사, 함박집 주방을 비롯하여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으나 동작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와 처음 해보는 일이기에 힘은 들었지만 철 모르고 따라온 아이들을 생각하면 주저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이란 나라는 일을 하면 월급도 없는데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내가 노력한 만큼 미래와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2011년 12월 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당시 경기도 OO시에 있는 철판가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없어진 손가락 마디를 보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술과 눈물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북부지역의 정착도우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선생님께서는 제 손마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제 부모 형제들을 대신하여 매일 같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북한에서 듣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 분들은 참으로 좋은 분들이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지역 정착도우미 선생님의 격려와 두 자녀를 가진 엄마로서 이대로 쓰러지면 잘 살아 보자고 데려온 자식들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다시 일어서자고 마음은 먹었으나 사고가 난 OO가 정이 들지않아

북한이랑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내 인생의 행복 찾기

지인을 통해 2013년 1월에 전북 OO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라는 생각 들어 6개월 과정의 세무교육과정을 교육을 받았는데 북한에서도 경제 전문학교를 졸업하여 배우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현실은 취직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기대는 맘 같지 않았습니다.

전북장애인 일자리 센터 OO희망 리본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수없이 직장의 문을 두드렸지만 멀쩡하지 않은 상태라 선 듯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힘들게 남한에 왔는데 장애인까지 되고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의미조차 없어 다시 매일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실의에 빠져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몇 번이고 죽으려 했지만 자식들이 앞을 가려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TV 보던 중 대한민국에는 팔다리 없는 중증장애인들도 꿈과 희망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그에 비하면 손가락 몇 개 없는 자신의 장애는 정상인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이고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탈북민 선배님들이 귀농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포도로 유명한 OO시 OO면에서 귀농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사일은 사람과 기계가 함께하는 현대화 영농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농사일이 북한처럼 단순히 막노동식의 일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귀농 지역의 특화 상품인 포도 농사의 영농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농촌 지도소 등을 찾아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였고 농지 6,000여 평을 임대하여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경에 일어나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질 무렵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면 몸은 천근만근 녹초가 되었지만 계절 따라 익어가는 포도를 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창 포도 철에는 잘 익은 포도를 보며 주변사람들이 “참 달고 맛있네요” 라고 격려해 주실 때의 그 감동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포도를 농협 공판장 외에도 값을 더 받기 위해서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 주변에 천막을 치고 판매도 하고 포도즙도 판매하면서 포도 재배 못지않게 판매하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는 “희망, 목표, 계획, 실천”이라는 좌우명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6년 귀농 자금을 받아 1,200평의 포도밭을 구입하고 일상생활을 하던 중 2016년 4월 포도밭 하우스 개폐기가 자동으로 떨어지면서 포도나무들이 모두 타버려 죽고 말았습니다.

웃음과 행복도 잠시...

시설도 다시 지어야 할 상황이라 빗을 내어 시설과 포도를 새로운 품종으로 다시 심고 가꾸었지만 빗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가감하게 농사일을 접고 2020년 8월부터 새로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6,000만 원이라는 큰 빚을 다 갚고 2023년 2월 전라남도 OO군 OO면에서 사시는 남편분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하고 밝은 성품에 마을 사람들도 차츰 마음을 열고 편안하게 대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들이 생각 나고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그리기만 합니다.

어느 날 딸과 아들에게 “만약 지금 너희들이 북한에 있었으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하고 물으니 딸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대답을하고 아들은 “군대에 있겠지요”라는 대답에 북한에서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내 인생의 행복 찾기

태어난죄밖에 없는 북한의 젊은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숨 걸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 미지의 세계로 달려와 이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합니다.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나를 일어설 수 있게 해 준 참으로
고마운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열심히 살아갈 것이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쑥떡

옛그제까지 만해도 여러여리 했던 새 싹들이 짙은 녹색을 띠면서 '나 이젠 어른이 다 됐어요' 하고 속삭이는 것 같다.

살랑살랑 불던 봄바람도 오월 중순에 접어들자 성숙된 바람으로 변했고 따스했던 햇빛도 지글지글 태우며 대지를 달궜다.

세월은 마치도 날 잡아봐라 하고 저 혼자 냅다 달려가는 것만 같다.

서울서 OO에 내려온 지 3년 지난 OO은 OO에 온 그해 삼월 초부터 차를 타고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쑥 뜯으러 다녔다.

둘이서 산책 삼아 쑥을 뜯으러 다니는 재미가 제법 쏠쏠했다.

아직 노년이라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 되었던 육십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십 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다 잊어버렸던 젊은 날의 감정도 봄날의 새싹처럼 솟아나는 듯했다.

차를 타고 이 삼 십분 거리 조용한 시골까지 가는 내내 즐거웠고 북한에도 쑥이 있냐는 엉터리없는 남편의 물음에도 괜히 웃음이 나왔다. 사상과 이념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황혼기를 맞고 있는 남남북녀가 느즈 막에 만나서도 꽤 잘살아 낼 수 있을까 하고 우려했던 바와 달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역시 혈통이 같은 한민족이니 만치 첫 만남부터 감정이 통했고 말도 잘 통했다.

쑥떡

감정도 감정이거니와 고목에도 꽃이 핀다는 말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육십 중반이 돼가지고 재혼을 한다는 건 아니 될 일로 여겨왔던 그녀였다. 언제까지 혼자 있어야 할지 가늠이 안 갔다. 간혹 가다가 아주 쓸데없이 허튼 상상도 하곤 했다.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고 자고 깨면 흔히 하는 인사말처럼 줄곧 혼자 자고 깨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 일가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살면서 또 혼자 자다가 귀신도 모르게 죽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지레 겁먹은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서울 OO구에 살던 탈북자 어르신도 혼자 자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넘도록 찾는 이가 없어 한 달 만에 시체를 발견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

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녀도 이젠 환갑 지나 칠갑을 바라보는 나이다. 북한 같았으면 그 나이에 허리가 꼬부라지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주부로서의 사명을 잃을 정도로 노쇠한다.

그런 그가 다행인 것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덕분에 아직까지 아파서 병원 다니거나 약을 먹는 일이 없고 얼굴도 나이에 비해 한 십 년은 젊어 보인다고들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통 데리고 오지 못한 자식들 생각뿐이고 이 좋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데려다 함께 살 수 있을까 등 늘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므로 그가 받는 스트레스는 장난이 아니다, 물론 탈북과정이 목숨을 각오해야 하는 순탄치 않은 길인 이유로 혼자 떠났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며 혼자 산다는 것도 역시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두고 온 자식을 그리워하며 슬픔 속에 사는 그 와중에도 아직까지 동안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자유세상이 가져다주는 행운인 것만은 틀림없다.

쑥떡

그동안 나라에서 준 임대아파트에서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국민으로 새로운 사회에 당당하게 적응을 하느라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도 모르게 열심히 사노라 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순간도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은 그녀의 분신들인 자식들이다. 그 아이들이 아직 굶주리고 고통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가슴에서 피가 솟구친다.

그런 자식들이 그리워서 눈물짓다 잠든 날이면 꿈에 나타난 자식들을 품에 껴안고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정말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울며불며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소스라쳐 깨곤 했던 날이 셀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과 헤어진 이후로 아직까지 소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 몸으로 외로이 사는 것도 죽고 싶을 만큼 고통이었다. 그렇다고 소식도 모르는 가족 생각만 하면서 날마다 슬픔 속에 묻혀 사는 것 또한 괴로운 일이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는 그날까지 버텨내려면 자신의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이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나 이후에라도 그 애들을 만났을 때 애들이 엄마의 살아온 삶을 이해해 주면 좋고 이해를 못 해 엄마는 미친년이라고 욕을 해도 달게 받을 각오로 재혼을 결심했었다. 황혼에 인생의 짝을 만나는 것도 본인이 감당해야 할 숙제라 생각했으며 어찌 되었던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건강하게 버텨내며 잘살아내는 것도 자신의 몫이라 생각했다. 또한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 더 늙기 전에 남자의 사랑을 받는 여자이고 싶었다.

남편의 첫 만남에 인상적인 것은 자그마한 실눈이지만 눈빛만은 반짝거 렸고 몸 관리를 어떻게나 잘했는지 중국영화에 나오는 <손오공> 만치나 몸동작이 날렵했다.

쭉뚝

“지나간 어렵고 힘든 날들을 다 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태어난 인생 이제라도 재미있게 살아봅시다.”

“앞으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생겨도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말아요.”

침 만났을 때 남편이 했던 말이었다.

그의 정겨운 목소리는 마치 북한에서 어렵게 살다 온 사람이니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겠소하는 소리로 들렸다.

“네. 그래야죠.”

어차피 맞닥뜨린 현실이니 내숭 떨 필요가 없다는 듯 시큰둥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녀는 대답했다.

그러면서 메마른 땅에 단비 같은 그 남자의 말에 또한 메말랐던 그녀의 마음도 봄눈처럼 녹아드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하나님을 지극히도 믿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번잡한 서울을 떠나 ○○ 마을에 마음과 함께 집을 풀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어 황혼기에 만난 두 사람은 봄의 여유를 한껏 누리며 쭉 뜯으러 다녔다.

그녀는 쭉 뜯으면서도 먹을 게 없어서 쭉을 뜯어다가 옥수수 가루를 버무려 한 끼씩 때우던 육 년 전 그때가 새록새록 떠올라 자기도 모르는 새 눈물을 흘치기도 했다.

그때는 도시서 살다 보니 쭉을 뜯으려면 삼사십리 밖으로 나가야 뜯어 올 수 있었다.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삼사십리나 되는 곳을 걸어가서 저녁 늦게야 돌아와서는 변변한 가루가 없어 옥수수 쌀을 보드라운 채로 거르면 한 컵 되나 마나 한 가루가 나온다.

혼자 먹어도 성차지 않을 양의 가루를 쭉과 함께 버무려 한 끼를 때우면 그나마 행복한 날이었다.

쭉떡

그렇게 불과 십 년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심한 배고픔으로 하루하루 견뎌오던 그녀가 지금은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들놀이 겸 쭉떡을 뜯으러 다닐 거라고는 꿈도 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 꿈도 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 신기할 뿐만 아니라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밤바다가 아름다운 OO가에서 지나온 옛 추억도 떠올리면서 그것도 혼자가 아닌 남편과 쭉떡을 뜯노라니 늘 불안했던 마음이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라서인지 쭉떡 향도 유달랐다. 냄새가 상큼하면서도 진했다.

남편과 쭉떡 뜯으러 다니는 내내 즐거웠고 욕심스럽게 많이 뜯어다가는 마치 비상용인 듯 저축까지 해놓았다.

그리고는 직접 농사 지은 유기농 쌀 한 사십 킬로 정도에다가 봄내 뜯어 저장해 놓았던 쭉떡을 섞어 가루를 내서 다시 냉동실에 얼려두었다.

일 년 내내 떡 장사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녀의 쭉떡에 대한 집착은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

헤어진 가족 뿐 아니라 먹지 못해서 누렇게 뜯 얼굴을 하고 있을 동네 아이들과 어른들을 생각하며 이제 금방이라도 통일이 되면 그들과 함께 먹을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북한에서도 호남 쌀이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물론 북한에도 열두 삼천리 벌에서 나오는 쌀도 좋다고는 하지만 밥 지을 때마다 꼼꼼하게 쌀함박으로 흔들면서 조심스레 씻지 않으면 밥에 돌이 많아 성한 이발도 깨지기가 십상이다. 띄약벌아래 쭉그리고 앉아 쭉떡을 뜯는 내내 입소문으로만 듣던 윤기가 찰찰 흐르고 티 하나 없이 하얀 그 유명한 호남 쌀로 가루를 내서 쭉떡 버무려 만든 떡을 맛나게 먹일 그날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고 그녀의 입가엔 미소가 절로 생겨나기도 했다.



내 이름은 000입니다.

"00야~너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새로운 곳에서 배굼지 말고 잘 살아야 한다..."

1998년 3월 5일 언니 오빠의 눈물을 뒤로 하고 얼음 덮인 두만강을 건너 산고개를 넘고 넘어 그렇게 북을 떠나왔고... 내 이름 000는 그날을 끝으로 다시는 불리지 못했다!!!

1974년 1월 15일 함경북도 00군에서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어릴적부터 밝은 성격과 튼튼한 체력으로 동네에서는 나름 힘꾼으로 유명세를 탔었더랬다.

덕분인지 13세에 00북도 체육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기계체조 선수로 육성되었다. 늘 몸을 놀리는 기계체조선수 생활을 하느라 몸은 늘 상처투성이에 배고픔의 연속이었지만, 나 하나라도 숟가락을 덜 수 있어 지독히도 가난했던 가족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와, 병들어 노동을 하지 못하는 어머니로 인해, 배급되는 식량의 양은 늘상 턱없이 적었기에, 한 번씩 집에 오는 날에는 반가움보다는 가족들의 부담스러운 눈빛에 맘을 줄이고서는 서둘러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곤 했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내 이름은 000입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다행히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게 되어 2년남짓 근무할 무렵, 큰언니의 부름에 집으로 달려가보니, 거기에는 중국 연변에 살고있는 외삼촌이 와있었다.

언니는 나의 손을 잡고 "OO야~우리 가족을 살릴 사람은 막내 너밖에 없는 것 같다~" "외삼촌 따라서 중국 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너 결혼자금도 마련할 수 있을거야"라며 청천벽력같은 말을 건넸다. 처음에는 울며불며 절대 못 간다고 애원했으나 간절히 매달리는 큰언니와 아픈 부모님을 비롯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니 마냥 거절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외삼촌은 "남들은 못 가서 난리인데... 와서 좀만 고생하면 가족들 다들 편하게 잘 살긴데..."라며 혀를 차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며칠 뒤...

둘째언니가 기지를 발휘해, 나를 사건의 피해자로 둔갑시켜 객사처리 시켰고, "이제 살아서는 절대로 여기 오지 말라~"라는 언니의 말을 뒤로 한 채, 나는 그렇게 북한을 탈출해 중국행을 감행했다.

보초를 서던 북한군인에게 중국돈 200원을 쥐어주고, 두만강을 건너 4시간만에 중국 OO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손바닥에 적고 간 외삼촌의 이름과 주소를 되뇌이며 처음 보이는 집에 들어가 통하지도 않는 말대신 몸짓발짓을 하며 외삼촌의 집을 수소문했다.

외삼촌과 숙모는 잘 왔다고 다독이며, 흰쌀밥에 찰옥수수를 넣은 밥을 한가득 퍼주는데,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두 손가락 정도가 남았을때에야 정신이 든 나는, 남겨둔 가족들이 생각나 슬며시 손가락을 내려놓으며 내 몸뚱이 하나 고생해서 우리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내리라 마음먹었다.

외삼촌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고, 설거지만 하면

내 이름은 000입니다.

한달에 300원을 준다고 하며, 식당 3층 다락방겸 창고에서 나를 기거할 수 있게 해줬다.

식당일은 어린 나에게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고, 외삼촌이 말했던 설거지뿐만 아니라 양파손질이며, 커다란 화로에서 밀국수도 삶아대느라 팔에는 화상자국이 가실날이 없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몸은 힘들고, 무서운 칼을 여기저기 내리꽂는 주방장의 거친 모습에 매일매일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했다.

북한에서부터 입고온 속옷은, 저녁마다 몰래 빨아 이불안에서 말려 입다보니, 삭아서 너덜너덜해지고, 생리가 터졌을 때는 휴지를 돌돌말아 사용해야 했으나, 주방사람들 중 누구 하나 공안에게 신고할까 무서워, 그 누구에게도 나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조차 없었다. 그렇게 한달정도 지났을 무렵, 지칠대로 지친 나는 주인에게 손짓발짓하며 외삼촌에게 연락을 청했고,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며 북한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다.

외삼촌은 궁리 끝에 00시내에 이혼 후 혼자 살고 있던 여동생에게 나를 데리고 갔고,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던 그곳에서 나는 살림을 도와주고 다림질 등의 허드렛일을 하며 하루에 3원의 돈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그 여동생은 나를 가엽게 여겨 토요일에는 중국말도 가르쳐주고, 일요일에는 하루 쉬는 날도 제공해주었다. 낮에는 공안들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고 밤에만 함께 시장에 나가 구경을 하고 물건을 사기도 했다. 그렇게 7개월 정도를 맘줄이며 보내다가, 공안의 호구조사가 너무 심해지니 그곳에서 기차로 8시간 정도 걸리는 흑룡강성 000시로 나를 보냈고, 회사에 취직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니 차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안전하겠다는 외삼촌의 말에 나의 인생은 또다시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섰다. 외삼촌이 먼저 보고 온 남자는 나보다 10살 많은 조선족이었고, 시아버지와 함께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내 이름은 000입니다.

시아머니는 자식들을 여럿 먼저 보낸 탓인지, 정신을 놓고 아침이면 나가서 배회하다가 저녁이면 집에 들어오는 그런 분이였다. 나는 혼인신고를 위해 '000'이라는 죽은 사람 호적을 돈으로 샀고,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식도 없이, 1998년 11월 21일 혼인신고만으로 정식 부부가 되었다.

의지할 사람 하나 변변히 없던 그곳에서 쌀밥만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고봉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허기지는 날의 연속이었고, 나가서 북한말을 하면 또 잡혀갈까 두려워 병어리 흥내를 내기도 했다. 결혼하고 다음해 1999년 9월 6일 딸을 출산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정말로 살기위해 중국말을 배워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이가 두 살되던 무렵 돈을 벌러 간다며 한국에 건너갔고, 시부모님과 딸과 함께 그렇게 중국살이를 이어가기를 6년... 점차 그곳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며, 주변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알게 된 남한의 실상은 '거지들만 득실댄다는' 내가 알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주변에 머물던 사람들이 하나둘 돈벌이를 위해 남한으로 떠난 뒤에야, 비로서 나도 남편을 만나러 남한으로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어린 딸아이를 시부모님께 맡긴 채 브로커를 통해 제3국을 경유, 우여곡절 끝에 소문으로만 듣던 남한땅에 입국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지금의 '000'이라는 이름을 새로 부여받고 서울에 아파트와 정착금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수소문 끝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남편이 다닌다던 경남 00의 자동차 부품회사였다. 전화해도 받지 않던 남편 대신 직장 상사가 나를 상대했는데,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이까지 있다는 말에 나는 망연자실 바닥에 앉아 엉엉 울어버렸다. "마음 떠난 남자는 잊고 새출발하십시오"라는 말을 남기며 그 직장 상사는

내 이름은 000입니다.

자리를 뒀고,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있다가 중국에 남겨진 딸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를 앓다문채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 돌아온 나는, 남한에 들어와 교육받은 대로 사랑방신문을 날마다 뒤지며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다행인지 이틀만에 집 근처에 있던 놀부보쌈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한 달 만에 주인 부부가 열쇠를 맡기며 아침에 가게 문을 열게 해주었다.

무겁고 뜨거운 돌솥밥을 나르는게 힘들었지만, 내가 일해서 북한과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매일 매일이 너무 감사했고, 남한땅에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힘든 줄 모르고 일했던 것 같다.

2년여~ 그곳에서 일하던 어느 날...

남한으로 넘어올 때 알게된 지인이 살고 있는 00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언니는 돈은 많지 않지만 착실한 남자가 하나 있다며 주선을 해주었고 나보다 8살 많고, 농협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초혼이라고 했다. 6남 2녀중 4째였는데,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사는 사람이었다. 인연이 되려는지 전화상으로 처음 들은 목소리가 그리도 따뜻하고 듬직하게 느껴졌더랬다.

그렇게 4번만의 만남 끝에, 나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00으로 내려와 2006년 3월 5일 그 남자와 결혼을 올리며 또다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되었다. 자수성가하며 어렵게 살아온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속마음을 따뜻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시골에서는 운전못하면 힘들다며 바로 운전면허를 따게 했고, 초보인 나에게 5분거리 밖에 안되는 거리이긴 했지만 날마다 출퇴근을 책임지게 하며 운전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내 이름은 000입니다.

나만 잘 먹고 사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밤새 울음 짓는 나에게, 이제는 혼자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며 함께 위로하고 힘을 보태주었다. 덕분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도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하루종일 농사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억척같이 살았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의 아픔을 겪어야 했으나, 몇 달 뒤 다시 임신을 하고, 2007년 8월 예쁜 공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아이가 훌쩍 자라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고, 지금은 나의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더할나위없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다. 탈북한 엄마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나의 노고를 알아봐주는 그런 사랑스런 나의 딸...

이런 딸에게 나도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 딸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업종이 각광을 받을거라는 말에 2016년 동강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며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도 했다. 영어가 익숙치 않은 나에게 병원에서 쓰는 의학용어며, 학교에서 배우는 외래어 등 모든것이 신세계였으나, '다른 사람들도 잘만 하는데 나라고 못할게 뭐가?'라는 의지 하나로 한발 한발 나아갔고, 지금은 병원에서 베테랑으로 인정받으며 열심히 내뿜을 해내고 있다.

어느덧 15년 넘게 00에 정착해 살면서, '지금만큼 내 인생이 행복할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한다. 이제껏 무심코 지나쳤던, 너무도 푸르른 하늘이 내 시야에 들어온 어느날.....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나의 20대와, 활화산처럼 뜨거웠던 나의 30~40대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하얀 구름이 되어 날아올랐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12세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부터 이것저것 허드렛일하며,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제 고향은 OO군이었습니다. 압록강 앞바다가 눈에 보이는 집에 살면서, 조개를 주워 팔거나 그것을 쌀로 교환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19세에 처음으로 파철을 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개보다는 조금 더 여윌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의 역할은 파철을 밀수해서 중국으로 나가면, 브로커가 쌀 또는 돈을 주었습니다. 몰래 경비대의 눈을 피해 압록강을 헤엄쳐서 OO이라는 도시를 왕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중국에서 돈벌이하지 않겠냐면서, 제게 양부모님이 될 분들을 소개해 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라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심정에 그날 파철 팔러 갔다가 북한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양부모님은 평범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브로커가 저를 두고 양부모님과 함께 무슨 수작을 부렸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잠깐 지내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도 돈을 벌어야 하니, 브로커한테 조개 공장을 소개받아 그곳에서 1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하지만 제가 중국말이 되지 않으니, 공장에서 북한에서 도망 온 여자로 들통났고, 신고를 당해 북한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10대의 끝을 노동 교화소에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 잘 알려졌다고 피, 저는 그곳에서 2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잘 먹지도 못한 채 고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화소에서 20대를 맞이하며 출소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 고향으로 왔더니, 고향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를 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년 중국에 도망갔다가 잡혀 온 년”이라면서요. 먹고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고향 사람들이 저와 제 아버지를 괘시하는 태도가 21살인 저를 더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것은 조개를 캐서 쌀을 바꾸는 일밖에 없었고, 그나마 익숙하게 하였던 것은 압록강을 헤엄치는 일. 저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염치 불고하고 중국의 양부모님을 수소문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양부모님댁에서 2 개월 정도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조개 공장에 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외로운 마음에 고향 분들과 만나 교류를 쌓았습니다. 타지에서 고향 사람을 만나니 반가웠지만, 그 마음은 끝내 배신으로 돌아왔고, 3일 만에 저는 다시 북한으로 잡혀갔습니다. 중국 돈으로 1,000위안을 주면, 없었던 일로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렇게 큰돈이 없어서, 남자 2명/여자 4명 저 포함해서 총 7명이 끝내 북한으로 잡혀갔습니다.

저는 재범이어서 단련형 1년을 옥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고향으로 왔지만, 고향 사람들의 괘시와 손가락질 욕은 더 심해졌습니다. 면전에서 욕을 듣는 것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친구와 함께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양부모님 댁에서 이를 정도 머물다가, 근처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옆에 한국분 손님이 있었는데, 저희에게 어디서 왔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저희는 또다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서울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웃으시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라며 명함을 주고 가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아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싫었고, 저 자신 하나도 먹고살기도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받은 명함으로 전화했습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본인은 어쩌다 한번 출장이 있으니, 부담가지지 말고 중국에 있는 본인 집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한국 브로커를 소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한국방송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저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국이라는 모습은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은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다시 잡혀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일단 믿기로 했고,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금액은 한국 돈으로 350만원. 한국에 도착하면 한국에서 일시금으로 주는 정착지원금 350만원 전부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국정원에서 17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원래 1~2개월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임신을 해서 일찍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OO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았고, 정착지원금 350만원 모두 브로커에게 전달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회사 생활은 OO에서의 3년이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운영하는 석탄 관련 회사였는데, 저는 이곳에서 3년 정도 경리로 일했습니다.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하지만 사장이 탈세혐의로 입건되었고,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하는 마음으로 지내다가, 언니들이 고향과 비슷한 곳이 있다며 OO도로 여행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현재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언니들이랑 호프집에 갔다가, 남편 친구들과 함께 동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장거리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연애하다가 첫째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저는 2019년에 OO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랑 일을 도우면서 둘째와 함께 오순도순 지내고 있고, 내년 2월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OO 미혼모 시설에서 읽었던 박노해 시인의 시가 떠올라 검색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결코 굴복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있다면/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삶은 기적이다/인간은 신비이다/희망은 불멸이다/그대, 희미한 불빛만 살아 있다면/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압록강을 헤엄쳤던 10대의 소녀. 교도소에서 노동 단련을 하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던 20대의 제가 끝내 지금 두 발 딛고 뿌리내리고 있는 oo에서 비로소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꽃을 잘 키워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은 불멸이라고 노래한 시인의 말이 현실이 된 신비 같은 제 삶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이 새지면을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맨 처음 농산물 직판장에서 월급 60만원 받으면서 일하다가 배워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앙 직업 전문학교와 한국 직업 전문 학교에서 웹디자인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보험설계사 권유를 받고 롯데손해보험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영업은 처음 해보는 일이어서 저에게는 매우 버거운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보험영업을 쉬면서 저는 고마운 지인의 소개로 체육관에서 일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운동하러 오시는 수십 명의 사람들과 만나고 상대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놀랍게도 나에게 영업이라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으며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고객 관리 고객 확보 이런 마음으로 철저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돈이고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다시 삼성 생명 보험회사로 면접 보러 갔습니다 그때 첫 면접 때 삼성생명 지점장님이 저에게 직접 건네주셨던 저자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는 저의 삶을 한 계단 바꿔놓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보험 왕이라는 야심찬 꿈을 안고 서울로 상경하여 롯데손해보험 본사에서 2 년가량 영업, 다양한 사업가들과 소통하며 나에게는 사업가 적 잠재력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 나는 시키는 일만 할 사람이 아니라 원가 프리랜서나 CEO 같은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딸아이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세요 엄마는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있잖아요"라고 진지하게 묻는 딸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을 뻔 했습니다. 어린이집 때부터 한국의 수준 있는 교육을 받아온 딸아이에게 뒤쳐질 것만 같아서 그때부터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다 잡고 "그래 엄마는 일하니까 행복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거든..엄마는 도전해서 지금보다 더 멋있고 재미나고 즐거운 일을 찾아내서 꼭 성공할 거야 두고 보렴" 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우연히 맨 처음 보험영업하면서 알고 지냈던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지인과 연락이 닿으면서 다시 보험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SNS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젊은 부자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지은 책(재테크 독하게 하는 방법 등..)을 선물 받았고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원가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자산관리라는 나로서는 어마어마한 분야로 접근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0대 30대 청년들도 수십억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런 모임에 나가면서 주식투자의 장단점들을 알고 배울 수 있었고 한때 브릭스 펀드 투자로 몇 백만 을 고스란히 날리고 어느 날 투자 후유증 손해 심리 같은 나름의 불이익에 대한 아픔도 겪어 보았고 때로는 뜻밖의 횡재로 기쁨에 흥분하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 뜻밖의 횡재 내용을 몇 자 더 적어 보려합니다.

당시 북한에서 나는 달러 장사를 한적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친척들로부터 보내오는 달러를 사용하다 보니 환율의 흐름을 그때 좀 익혀둔 것이었는데 처음 한국에 와서 목돈이 생기자 월 할까 고민하던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중 나는 과감하게 외환은행으로 가서 달러 수백만 원어치를 교환 해 두었는데 운 좋게도 몇 달 후 환율이 경총 뛰어 올라 횡재했 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러한 재테크 투자 분야와 연결되어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당시 내가 생각해보니 보험이었습니다. 일단 이 직업은 내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정년퇴직이 없다는 점이 젤 마음에 들었고 월급은 내가 일한 만큼 받으면 되니까 그건 나한테 달린 거 고 다시 원주민들도 힘들다는 보험영업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기업 임원과의 연계가 닿으면서 나는 본격적으로 보험영업에 착수하였고 수백 대나 되는 자동차 단체보험계약 성사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서 뛰고 또 뛰었고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오기로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참 보람되고 뿌듯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다시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뛰어다닌 지 3개월 만에 나는 신인 명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아침조회스크린에 내 이름이 축하의 글과 함께 아주 크게 적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보상을 실감했고 최선을 다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얼마든지 성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내 몸으로 깨우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날 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5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더 큰 꿈을 향해서 야망을 품고 도전하던 중 어느 날 다시 OO지역 금뽕지 1호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수 천 명 되는 전남지역 보험설계사들 중 내가 제일 먼저 목표 달성한 1호 탄생자라는 말을 듣고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명인상의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행운이 나에게 오다니...정말 꿈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은 남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하냐고 굉장하 놀라면서도 한편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성공은 그 어떤 행운이 가져다 준 결과가 아니라 지칠 줄 모르는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나의 영업 탐구 열의와 꾸준한 인내력의 결과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한민국 나라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짬짬이 공부하여 그토록 원했던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5년 만에 취득했고 돌이켜 보니 제가 하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영업하면서 짬짬이 공부하고 공공기관에서 정착 성공 간담회 초청 강연, 평양예술단 OO 대표로 활동하였고, 세월호 침몰사고 진도 체육관에서 침식하며 시민으로서 당연히 할 일 봉사하였는데 전라남도 지사께서 감사장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공공기관 고등학교 대학교 안보강연, 모란봉 클럽 방송 출연, 국방부 대북방송 및 KBS 방송 녹화, OO 미역 섬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모습 생방송 전국시대에 소개, 해마다 OO항구축제에 참가하였고 어느 해인가 비내리는 OO 평화광장 무대에서 "반갑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던 OO시장님께서 저에게 손수 우산을 받쳐주시면서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는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박수 쳐주시던 시민분들도 정말 고마웠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님의 자상한 모습은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사랑으로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저의 한국 정착 성공은 저 혼자 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탈북민들을 한민족으로 받아 주고 아껴주는 전남 하나센터 모든 선생님들과 지역 시민들의 따뜻한 정과 사랑의 물심양면 후원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새롭고 특별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정착 과정은 저에게 두 번의 대학교 교육과정을 거치게 하였고 그 과정에 시민명예경찰관 자격과 노령화 시대에 필요한 돌봄 업무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배워 필요한 업무자질을 갖추 수 있었습니다. 미래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로운 하루하루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선물임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대한민국은 내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그 속에서 저는 성실하게 배우고 공부하여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라는 국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관련 분야에서 현재 최선을 다해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투잡으로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 천연비누 만들기를 하였는데요 창업교육을 거쳐 천연비누 화장품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만의 비누 가게를 창업하여 현재는 직장일과 가게를 같이 운영하는 프리랜서로 왕성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의 최종 꿈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은 높은 수익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 노인, 장애, 아동, 탈북민 등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복지시설에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는 탄탄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더불어 상부상조 함께 상생하는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최종 목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을 후원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이고 보답이고 실현해야 하는 나라사랑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씩씩하게 당신들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존재함으로 힘들어도 언제나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조국 약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언제나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대손손 길이길이 살아갈 내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시간이 약인가봐요.

사람들은 말한다. 이땅에 나서자란 우리도 살기 팍팍한데... 하물며 낯선 곳에서 교육, 환경과 체제 자체가 (심지어 한 민족에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는 하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은 나만 드는 것일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당신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 걱정스러움과 안쓰러움의 눈길을 보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다. 물론 단편적인 면만 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뭐 어느나라, 고향어디가 뭣이 중한가?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낯선것도 시간이 약이라고 지나가다보면 다 익숙해지는 듯 싶다. 처음이라는 경험은 어느 누구나 어느곳에 가던지 당황스러운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똥개 삼년이면 울바자를 넘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눈치로 이해를 하던 상황도 어느순간 귓구멍에 쑥쑥 들어 박히기 시작한다.

이곳에서의 정착도 어언 8년을 넘기고 있다. 사무실에 앉아 일기장을 펼치다 보면 혼자 씩 웃는다. 버티자. 조금만 버티자 문구가 왜이리 많은가? 하긴 버티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나자신도 없었다는것을 잘안다. 이젠 사투리도 제법이라 토박이 뽀치는 전라도 어투에, 뼈약대던 아들이 벌써 초4,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좋은 엄마는 되지 못하더라도 나쁜 엄마는 되지 말자는 각오로 살아온 날을 돌이켜보니

시간이 약인가봐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뿌듯하다.

돌이 갓지난 젓먹이 아들이 잠든 새벽 18년 동안 소식이 없던 엄마가 한국에 계신다는 소식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떠나고 싶었지만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극박한 상황을 대비해 아들의 안전을 위하여 잠시 헤여짐을 선택해야만 했던 그때 그 마음을, 혹여라도 아들이 커서라도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 (지금도 어릴 적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을 끄집어내며 가끔씩 물어본다...) 아이는 내가 도착한 뒤 애기 아빠가 여행비자로 쉽게 데리고 왔지만 삼국을 통해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하나원을 나오기까지 7개월은 족히 걸렸던 시간동안 애기가 받았을 상처를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물론 무사히 이 땅에 도착한 본인은 행운아라고 표현을 한다. 오는 길에 잡혀 총살당하신 분들, 잡혀나가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삶의 빛을 잃으신 분들, 죽음의 메콩강에서 아기를 등에 업은채 배에 타다가 아기의 발이 악어에게 물려 엄마도 같이 악어밥이 된 기막힌 실화들을 생각하면 한번씩 심장이 벌렁이며 악몽에서 깰때가 있다. 이기적이지만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한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죽음의 길이였지만, 밝게 웃는 아들과 한번씩 여행의 길 위에 있을 때나, 내 귓가에 사랑해 행복해를 속삭이는 간지러운 아들놈의 목소리가 들려올때면 그때 나의 선택이 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한다. 언제나 큰 대가가 있으면 그만큼 보답도 따라온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는 듯 싶다.

엄마의 만남은 나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다. 18년 만의 친모하고의 만남은 생각처럼 화려하지도 생각처럼 행복하지도 않았다. 13평 남짓한 자그마한 곰팡이냄새가 쿼퀴한 자그마한 집에서 중학생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던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를 연명하시고 계셨다. 브로커에 속아 해외 이민을 위해 모든 것을 팔고 빚까지 산더미처럼

시간이 약인가봐요.

진채로 해외로 떠나셨던 엄마는 3년을 지내고 버티시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쌓인 빚을 처리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하고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하셨다.

내가 상상했던 엄마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닌데 하면서 많이 싸웠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다. 새로운 터전에서의 새로운 삶도 두려웠는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곳에서 엄마의 모습은 비참 그 자체였다. 다행히 나라에서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니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처럼 굶어죽을 일은 없었다. 난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을거야를 가슴속에 새기며 대학에 입학할 한다. (학력과 경력을 쌓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거 같다.) 나라에서는 새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는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에 등록을 하고 나라에서 주는 생활비로 애 키우고 살려고 하니 부족함이 많아(먹고 사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본주의의 머니제일주의에 빠져 눈먼 장님이 되었던 난) 돈 되는 일이라는건 다 도전했던 거 같다. 술장사가 쉽게 빨리 돈이 된다는 얘기에 노래방 장사부터 시작해서 다방장사, 호프집 등등 안해본 일이 없다. 말로는 아들을 위해 학교와 저녁에 일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산다고는 했으나 3~4년을 정신없이 돈돈만 쫓으며 가다보니 집에서 부모와 지내고 있는 아들의 심리 상태는 헤아리지 못했던거 같다. 쭈뼛쭈뼛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지 엄마자체도 어려워하는 아들을 보던 지인분이 심리상담센터를 추천해주시면서 가보라고 했다. '쎄, 돈도 물론 좋지만 이젠 니 아들의 심리상태를 들여다봐. 브랜드 옷이나 장난감을 사준다고 아이를 위하는거 아니야, 진정으로 아이를 위한다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참 고마운 지인분이셨다.

시간이 약인가봐요.

그분이 아니었음 지금도 아마 돈돈만 쫓으며 하루를 자신이 쳐놓은 그물 안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자본주의는 권력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아야 한다는 정신나간 생각에 사로잡혀 내 아이의 마음을 한번도 들여다 본적이 없었다.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니 아이의 어두운 마음 상태보다도, 강박감과 분노조절 신경쇠약으로 인해 나의 마음 상태와 건강상태가 초 비상에 근접해 있었다. 입원 치료를 권할만큼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던 나는 "돈 많이 벌겠다는 것이 잘못된 아니잖아요, 나같은 사람은 이땅에서 돈 많이 벌어 이기는것 외에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길수가 없잖아요. 내가 벌어야 내 아들이 어깨 펴고 살 수 있다구요.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동안 홀로 자신과의 싸움, 낯선환경과의 싸움과 고향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던 부담감들이 꺾꺾 눌러 담아 놓았던 듯 혹 솟구쳐 올라오며 터져 나오는 울음을 두손으로 틀어막으면서 소리쳤다. 조용히 들어주시던 선생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다 잘사는 거 아니에요, 잘산다는 것이 꼭 돈이 많아야만 잘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써니씨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이 알아두세요 . 너무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감을 이젠 조금이라도 내려놓아도 될듯싶네요. 돈만 많아 뭐할거예요? 그 기간 동안 놓치고 살아온 내 아이와의 시간은요? 그 아이가 많은 돈을 원하든가요? 아니요. 절대 아닐거예요. 아들은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원하거든요. 아이를 위해 산다면서요, 아이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 옆 방에서 유리 넘어에 선생님 한 분과 신나게 모래놀이에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의 얼굴에서 오랜만의 미소를 보았다. 웃음을 잃은지 오래된 아이였다. 그 아이의 웃음을 보려고 비싼 옷, 신형 테블릿PC, 원하는 모든 장난감...

시간이 약인가봐요.

애를 많이 썼었는데 저 아이는 물질이 아닌 관심과 사랑을 원했구나, 주르르 흘러내리는 눈물을 애써 닦았다.

뭇이 중한디 돈도 물론 좋겠지만 입으로만 외치던 내 아들이 젤 중한디... 담날로 바로 노래방 다방 모든 장사를 접었다. 물론 옆에서 든든이 뒷받침 해주는 남친의 몫도 컸다고 생각한다. 보모를 정리해서 내보내고 직접 살림을 맡아 아이의 정서 안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거 같다. 물론 그 시간들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정서 안정에도, 현재의 나를 만드는 든든한 뒷받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짜투리 시간이 넉넉하니 남았다. 집에서 살림만 하는 성격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나는 언제부터 머릿속에 그려나가던 나의 1차적인 꿈을 현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마침 대학을 졸업한때라 시간될 때 예약제로만 받을 수 있는 샵을 오픈한다. 아르바이트생의 알바급여만큼만 벌면 되다는 생각을 하며 조금씩 한걸음 앞으로 나가본다. (전공이 뷰티과라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성에 맞지는 않구나 라는걸 느끼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년 정도 지나오면서 아이도 고학년에 올라가고 있으니 오랫동안 꿈꿔오던 미래에 대한 꿈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낮이나 밤이나 미래를 꿈꾼다. 나라는 존재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커가는 내아들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미래를 꿈꾼다.) 오래전부터 건설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나는 남친의 지지하에, 돈주면 컨설팅해주는 업체들이 있겠지만 모든 서류과정들을 직접해보고 싶어던 마음에(물론 컨설팅 금액도 아까웠지만 무슨 일이든지 직접 해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라) 한달이라는 기간동안 인터넷을 찾아보며 직접 발로 뛰어 법인을 설립한다.

대표로서 장비하나 다루지 못함에 무능함을 느낀 저는 하나센터 상담사님의 도움으로 포크레인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시간이 약인가봐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기에 짬짬이 컴퓨터학원에서 공사현장 도면을 볼 수 있는 캐드도(하나센터의 도움에 감사를 드린다.) 배우고, 사이버대에서 토목기사 자격준비도 하고 있다. 목적지인 종합건설로 가는 길이 물론 어렵겠지만 하루하루 경력을 쌓고 앞만보고 달리다 보면 내꿈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한다.

저를 아는 분들은 여러 가지가지 한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다 보니 고생도 많이 했고 그만큼 경험 또한 크다. 최소한 이젠 내아이와의 대화가 돈보다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거 짚은 잘안다. 여러 일들에 빠져 방황하던 시기 애기 아빠와도 이혼은 막을수 없었지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중의 하나가 "원 여자가 살만한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지 뭇하러 저리 뽕식게 산단가"라는 말이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여자 혼자서도 내꿈도 꿀 수 있고 실현시킬 수 있으며,아이 또한 훌륭이 키워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최소한 주체적인 나의 선택의 자유는 있지 않는가? 그 자유를 위해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걸어갈길이 멀고 멀지만 코앞만 보며 머니를 찾던 추억속의 나 자신이 아닌 옆에 사람들도 챙기며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닦아 나가고 싶다. 이제라도 옆을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가 생긴 나 자신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넌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것이라고 스스로 쓰담쓰담 보듬어 준다.

오늘도 내사랑 아들은 축구공을 손에 든채 땀에 찌든 머리를 내 겨드랑이에 틀어박으며 엄마 사랑해를 속삭여준다. 이 소소한 현재의 행복이 감사하고, 미래의 나의 행복에게도 기다리라고 가슴속에서 소리쳐준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시간이 약인가봐요.

아침 하나더 추가!

수급자이시던 엄마도 이젠 신용회복하시고 어엿하게 나라에 세금내는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계신다. 다시 일어나 앞을 걸어나가고 계시는 엄마에게도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정부에도 감사하다. 많은 지원들, 많은 관심들 덕분에 오늘날 나의 행복을 찾을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난 8년 정착 동안 대학등록금문제 에서부터 생활비 문제, 아이 학원비 문제 등등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수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중의 한 명이다. 이젠 받은 만큼 충실이 국민으로서 세금 잘내고 기회가 된다면 봉사의 기쁨도 나누면서 현재의 행복을 이어나가 보련다...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및 전라남도 지역사회 성공 정착 과정

“북한에서의 삶”

함경북도 OO군 OO읍 존경하시는 부모님들의 5남 4녀중 둘째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고 배려심 많고 웃 어른들을 존경하는 인성을 배우면서 자랐고 인민학교 4년 과정, 중고등학교 5년 과정을 졸업하고 부모님들의 대를 이어 협동농장에 진출하여 어엿한 사회의 한 사람으로써 열심히 농장원으로 일하면서 청년작업반의 사로청위원장으로 직책을 맡고 사로청원들을 이끌어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그들과 한 몸이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왔다.

1988년 결혼하고 3남 태어나고 점점 살아가는데 힘들어지고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는 무엇으로 세 아들들의 배를 채워야하나하고 매일 매 순간 걱정이었다.

아들 셋을 키우랴 농장일을 하랴 새벽 01:00에 물동이에 불린 두부콩을 담아 머리에 따바리 올리고 물동이를 이고 20~30분 정도 되는 방앗간에 가서 콩 갈아와서 두부 만들어 팔고, 두부밥 만들어 팔고, 파배기, 찌뽕, 밥완자 만들어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팔고 (강냉이나 두부콩으로 받은 것을 장마당가서 팔고) 본전 빼고 남은 돈으로 강냉이 가루 사다가 애들한테 시래기나 풀 뜯어서 삶아서 강냉이 가루 조금

넣어 가마에 찌주고 죽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애들 굶어죽이지 않으려고
앉아 있는 시간 없이 땀땀이 돌아쳐도 너무 힘든 날들이 지속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빈곤한 생활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일성이 서거하신 후 고난의 행군이 더 심하게 진행되어 생활은 더
말할 수 없게 변해갔다.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없어 기차역전, 버스정류장, 공원에는 버려진
애들이 속출했고 고아원, 마을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장마당 가면 굶어서 퉁퉁 부어 도둑질해 먹다 붙잡혀서 매맞아
피흘리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였다.

그 고통 속에서의 하루하루 일상들이 참으로 비참한 현실이였고
가는곳마다 꽃제비들이(부모 없고 갈 곳 없는 애들) 많았고 인간답지
않은 생활들이 지속되면서 죽지 않으려고 중국으로 도망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탈북하는 현상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출근하면 어제 저녁에 어느 집이 가족이 다 도망갔다. 누구네 집
마당에 과자, 사탕 박스가 있는거 보면 밤새 중국 갔다 온 것 같다. 라는
말들이 많았다.

한 사람, 두 사람, 한 가족, 두 가족이 없어지고 탈북하면서 사람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인식이 변해지면서 탈북률이 많았다.

“탈북과정 및 전라남도 지역사회 성공 정착 과정”

1999년 11월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날이였다.

중국가서 한달동안 돈 벌어서 장사 밀천 이라도 마련해서 세 아들들
먹여살릴 생각을 하고 탈북을 결심했다.

어린애들 집에 두고 중국으로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아 큰아들한테
돈 벌어 올테니 동생들 잘 돌보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있으면 돈벌어다가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및 전라남도 지역사회 성공 정착 과정

배부르게 살 수 있다고 부탁하고 눈물 흘리면서 두만강으로 향했고 국경경비대원들이 아래 방향으로 순찰가는 틈을 타서 윗 방향으로 정신없이 두만강에 뛰어들어 거친 물살을 헤치고 두만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11월 중순이라 두만강 양쪽이 얼음이 얼어있고 가운데만 얼음장이 둥둥 떠다니고 약 30미터 정도 물이 흘렀다.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국경경비대들한테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두만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물에서 나오니 바지가랭이 뽁뽁 얼어서 걸을수가 없었는데 중국병방대한테 붙잡힐까봐 뒤도 돌아볼사이도 없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눈앞에 보이는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도움을 청했다.

집주인은 너무 놀라서 멍하고 계시더니 작은방에서 갈아 입을 옷을 가져다주었고 따끈한 강냉이죽을 한 그릇 주었다.

그런데 그 따끈한 강냉이죽을 먹을 수가 없었다. 온 몸이 얼어서 사시나무 떨 듯이 떨리고 이빨이 따다닥 소리나듯이 턱이 떨려서 뭐이든 먹을 수가 없어서 두툼한 솜이불 덮고 아랫목에 누워있었고 두 시간정도 지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그래도 국경경비대에 붙잡히지 않고 무사히 탈북한 것에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음날 나를 받아준 집주인들이 고마워서 이불 빨래 해주고 집 청소 해주고 부지런히 고마운 분들한테 보답하려고 노력했다.

3일째 되는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어딜갈데 있냐고 물어보기에 식당에서 한 달정도 돈벌어 북한으로 애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그 집 남편이라는 분이 다시 갈수 없다고 하면서 중국 흑룡강성쪽으로 돈 벌 수 있는데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흑룡강성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북한에서의 삶, 탈북 과정 및 전라남도 지역사회 성공 정착 과정

그렇게 남편이랑 애들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우선 말이 통하지 않아 너무 막막했고 애들이 보고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저럭 열심히 돈을 벌어 애들한테 보내주고 중국에서 국적도 없이 생활하는게 숨어 살아야만 하는 생활이었고 공안들이 북한 사람들 잡으려고 수시로 돌아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북한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었다.

북한에서 배고픈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중국에서 흰밥 배불리 먹어도 더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 지속되어 한국행에 대한 희망을 갖고 한국행을 해야만 아들들을 데려올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국행을 결심했고 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국정원에서 하나원을 수료하고 요양보호사자격증 취득하고 직업전문학교에서 제과, 제빵,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하고 떡과정 마스터하고 직업전문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근무하다가 아들들 데려오려고 하니 월급이 너무 적어서 요양원 조리사, 요양보호사로 열심히 돈을 벌어 살아온 결과 현재는 3남 1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는데 성공하였다.

애들은 OO, OO, OO에서 저는 OO에서 각자 잘 적응하고 있다.

저는 현재 전라남도 OO시에 6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6년차 근무하고 있고 치매전담 어르신들을 내 부모 모시는 마음으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전라남도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각종 물품, 후원금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며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정착기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북한에서 온 우리 사람들을 관심사에 도와주시는 심사위원님들께도 감사히 인사를 올립니다. 내가 살겠다고 왔지만 이렇게까지 모든 일에도움 주시고 일일이 관심해주시니 진짜로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일해도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것 다 팔고도 헤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할 수가 있고, 일 못하면 나라에서 먹여주고 돈도 주는데 아도번 여기처럼 좋은 세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번 만번 잘 왔고, 지금 하는 일에 모두 잘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가도 우리는 첫째로 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아프면 또 주사로, 약으로 다해주시니까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북한은 주사도 약도 없고요. 아프고 하의 끓어 죽어 가는데 여기는 쌀도 주고, 아프면 약도 주는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요..? 저는요, 아들도 계속 아프고 장애인이지만 나라에서 다 해주는 좋은 세상에서 사니까 진짜로 좋습니다. 아마도 북한 사회에서 살았다면 나도 아들도 죽었을 것인데 지금 아들도 치료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요 그래 여기 한국에 와서 치료비만 내라해도 엄청 내겠는데 우리는 돈도 얼마 내지 않고 새터민이라는 속에 치료받고 살아 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머리숙여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하여 아들은 장애인으로서 장애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인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는 대한민국이 참말로 좋은세상이지 어디가 좋은 세상이겠습니까요.

처음에 와서는 정치로 말하자면 서로 욕하고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놀라웠습니다. 우리 북한은 정치 하나로만 되고 싸운다는 것은 보고 준자도 없는데 여기는 대통령 되라고만 우리 국민들에게 잘해주는 세상, 국니이 세상인것이 놀랍고 휘라한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하여 알고 있지만. 북한 생활과 비교하면 진짜로 반도 못하는 형편이고 차이점이 넘 많습니다. 한국과 북한 사이는 한 나라의 지도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게 저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첫째로 잘된 사회이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는 하나이지만 세상은 서로 다른 세상, 이것이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북과 남, 이것이,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세상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 이 조국이 진짜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지도 위에 두 개로 갈라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을 볼때면 마음도 아프고 쓰리고 하네요.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중인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을걸 하는 생각도 없지 아니, 있습니다만, 올길은 못 찾아서 오지 못한 다하고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르니가은, 북한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하루빨리 좋은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야 하네요. 오신 분들도 이니리에 이세상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갑시다. 치료도 병원에서 다 해주고, 주사도, 약도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세상, 일할 처지가 못하면 그대로 다 생활대로 해주는 이 좋은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자유를 찾아서

어느덧 북한을 떠나온지도 2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남과 북의 교류는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26살의 어린 나이에 북한의 험한 세상을 등지고 동생들과 이별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조금씩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왜냐면 사회주의던 동유럽 나라들이 하나, 둘씩 자본주의로 이행하고 옆에 이웃 나라인 중국도 특색있는 사회주의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외교관계가 좋았던 러시아도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저의 회사도 북한에서 대기업에 속하는 1급 기업소지만, 러시아로 인하여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전기도 끊기도 배급도 끊기도 교통도 마비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시장에서 살아야 했고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녀야만 했다.

북한은 이 모든 것이 미국이 경제봉쇄를 하기 때문이라고 선전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김정일이 국내 정치를 하고 김일성이 국외 정치를

하기때문에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잘 몰랐다고 했다. 간부들의 허위 보고로 인하여 북한 사람들의 생활고는 더욱 악화되고 조금씩 반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정치를 하면서부터 너무도 극심하게 사람들은 힘들었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아사가 많이 나고 기차역과 시장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제 시대때 조선이 해방된 날처럼, 복새통이었다.

몇 일을 굶어서 퉁퉁 부어오른 애들도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 밑에 비닐장막치고 집이 없어 자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저런 신세가 될지 모르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집 식구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 행복했던 저의 집도 84년도 10월 어느 날 아버지를 정치범 수용소로 데려갔다.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다.

중학교 2학년때 그날 따라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출근하신 아빠를 무척이나 기다리셨다.

오늘따라 원눈이 자꾸 붓는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면서 안 좋은 징조가 생길 것 같다고 하시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도록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아빠 친구인 집에 가서 왜 아빠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다. 아빠 친구는 어린 저에게 아빠를 보위부에서 데려갔다고 하였다. 보위부가 어떤 곳인지 처음 듣는 나이지만 안 좋은데라는 것을 직감하였다.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통곡하며 슬피 우셨다. 왜 안그러실까 집안의 기둥이 무너졌는데 어머니도 남동생을 낳으시고 산후병으로 병원 생활을 하셔서 가족의 생계를 할머니가 책임지고 살아갔다. 그러는 할머니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아빠 없이 살아갈 날이 끔찍했을 것이다.

참으로 지금 생각하면 옛날일 같지만 어떻게... 저런 세상에서 살았는지 끔찍하다.

순진한 북한 사람들을 독재주의로 고립시키고 역사를 왜곡하고 삼대세습을 강요하고 세뇌시켜서 우상화로 충성하게 만드는 너무도 그 어느 세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왕조 세습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 세상이 너무도 수치스럽다.

저희는 000에서 살다가 엄마가 아프셔서 함경도 00로 이사를 왔었다. 그리고 4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가 그렇게 보위부로 즉 정치범 수용소로 데려가고,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병원도, 입원 환자들이 영양실조가 나타나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다.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돌아온 어머니의 병은 증세가 심각했다. 나는 어머니가 먹고 싶다는 것은 다 해주었지만 속에서 음식을 받지 못하였다.

영양에 좋다는 오리공을 해드렸지만 드시지 못하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희망이 없어보였다.

94년에 많이 경제위기 오면서 사람들이 아사가 났다.

그렇게 어머니는 자기 병을 이기지 못하고 퇴원해서 한 달을 못 넘기고 돌아가셨다.

할머니는 삼촌이 더 이상 저희 집에 고생 안 시키시겠다고 데리고 가셨고 그때 내 나이가 21살 나는 1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났지만 삼촌이 할머니를 데려가셔도 무덤덤했었다.

왜냐면 할머니가 저희들 때문에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잠시라도 삼촌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사시라고 할머니는 주머니를 털어서 있는 돈을 모두 나에게 주셨다.

이렇기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나는 두 동생들을 21살의 어린 나이에 돌봐야 했다. 삼촌네 집이 부자였다.

할머니가 계시는 OO도 삼촌집에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어 조리 살기는 괜찮았다.

하지만 점점 북한 경제위기는 너무도 극심하게 열악하여 OO도에 있는 삼촌네 집조차 가는 것이 교통이 마비되어 가는 것이 보름 오는 것이 보름씩 걸리면 차라리 앉아서 하루살이 장사하며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97년에는 너무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아사가 많이 났다. 어느 날 시장에서 튀김 장사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살이하고 있는데 절친인 친구가 아는 사람이 중국에 왔다 갔다 밀수하고 있는데 너 아버지도 정치범 가족이 되었는데 북한에서도 살 희망이 없지 않냐고 그럴바엔 차라리 중국으로 가는게 어떠냐고 여쭙었다. 하지만 벽에도 귀가 있다는 북한에서 친구에게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생각해볼게라고 했다.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 가족으로 고립되어있는 우리 가족은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면 간부로 승진할 수 있는 모든 여권이 주어진다.

그러니 아버지의 정치범이라는 낙인으로 저의 형제들은 아버지 때문에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북한 사회에서 소외된 가족이다. 허나 나는 한 번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만큼 아버지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억울하게 갔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러시다가 위에 오빠가 한 달 만에 죽고 저를 낳으신 것이어서 나를 귀한 자식이라 엄마는 업어 키웠다고 하신다.

그러시는 아빠는 조금만 다치면 잘못될까봐 우시고 나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어디를 가셔도 손잡고 친구 집도 다니시고 친척 집도 다니시고 학교 다닐 때 숙제도 심지어 해주셨다.

아빠는 반유급으로 선전대 대장을 하시고 기술자라서 출장을 자주 다니시고 직맹위원장도 하시고 아빠 공장에 가면 항상 속보판에 대문짝만하게 일 잘한다고 아빠 이름이 불러있곤 하였다. 그런 아버지를 믿기지가 않았다.

미스테리한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과묵하고 직장에 충실하고 모범적인 아버지를 저도 지금까지 믿기지 않았다.

결혼할 나이 되어, 남자들도 저의 집에 많이 찾아왔다.

하지만 저와 결혼하면 그 남자의 미래는 승진이 없다하여 좋아하는 오빠와도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질려고 했지만, 오빠는 놓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오빠를 고마웠지만 오빠의 앞으로의 장래를 저 때문에 망칠 수가 없었다.

그 와중에 친구가 밀수꾼을 소개를 해주어,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 밀수꾼은 제가 장사하는 시장까지 쫓아와서 나를 설득시켰다. 중국에 가면 황홀하다고. 그래서 저는 왜 북한이 못사는데 중국에 가서 총각들과 시집을 가야 되냐고 물었다. 중국에 있는 여자들은 해외로 많이들 빠져서 시골에 남자들 밖에 없다고 하자 그때야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 날 저녁 동생들과 다같이 중국으로 가려고 생각했지만 남자들은 중국에 가면 호구 붙이기가 힘들다는 소리에 제가 먼저 중국에 가서 연락하여 동생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그날도 가려고 떠난 길이 아니었고 밀수꾼이 저의 집으로 와서 기차역에 기차가 들어왔는지 가보자고 하기에 남동생이 있는 친구집에 집에 열쇠를 주고 떠나려고 하는데 무엇을 직감했는지 남동생은 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기차역으로 나간 것이 마지막 이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진도 못 챙기고 작별 인사도 못하고 우여곡절 끝에 중국으로 건너와

자유를 찾아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항상 중국 공안 잡히지 않을까 긴장을 하며 악몽을 꿈을 꾸면서 중국교회에 다니는 한 집사님의 소개로 한국 가는 루트를 소개받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돌고 돌아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정말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대한민국은 너무 마음이 편안했다. 중국에서 한국에 몇 년 동안 그냥 동생들이 꿈에 보이고 악몽에 시달렸다. 한국에 정착하여 열심히 사는 동안 강산이 두 번 바뀌었다. 하지만 그리운 동생 소식은 브로커를 통하여 고향에 있는 가족사진 두 장이 전부였다. 저로 인하여 OO도에 살고 있던 동생들은 보위부에서 저를 찾으며 다니자 외삼촌에게 연락하여 OO도로 이사가서 결혼하여 아이도 낳고 살고 있다고 브로커를 통하여 소식을 전해 들었다.

2007년도쯤 한 번 북에 있는 동생들 소식을 듣고 브로커들은 OO도까지 너무 멀다고 가려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남동생 집이 불이 나 산속에 오두막 짓고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남동생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브로커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목이 꽉 메여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남동생이 나 때문에 아프고 있는 것 같아 동생을 두고 온 나의 죄 짓는 무거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했다.

다음에 오시면 가족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겠다고 그때 몇 일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혹시 나 때문에 남동생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자그마한 자영업도 하면서 한국에 적응하고 있다.

한국 생활이 낙후한 북한사회 독재주의 사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20여년 동안 진짜 앞만 보면서 산 것 같다. 앞으로 그리운 동생들을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꿈

사람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꿈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 지진 않는다.

나의 유년 시절 꿈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제주도에 사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살기 좋은 곳이어서도 아니고 다만 제주도의 해녀들을 보면서 사는 것이었다.

나는 북한에서 태어나 30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남한으로 온 탈북민이다. 유년 시절 나는 부모님의 슬하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행복하게 살아왔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행복이 당연하다고 살아왔고 또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다.

1992년 8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월 나는 우체국에 입사하였고 다른 친구들은 탄광, 농장으로 배치되었다. 대학교, 전문대 간 친구들도 몇 명 있었다. 나에게 사회생활이란 그야말로 낭만과 웃음 그 자체였다.

그러던 나에게도 시련이 다가왔다. 한국에 오려고 생각했던 때가 2005년부터였다. 하지만 부모님께는 말을 못하고 혼자서만 고민을 했었다. 여러번의 기회도 있어 오려고도 했으나 부모님을 떠나 나홀로 집을 나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 그렇게 2년이란 세월이 흘러 2007년. 나는 부모님께 한국에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꿈

아버지는 찬성은 안 하셨지만 반대는 안 하시고 어머니는 나에게 정신이 나갔냐고 하면서 엄청 반대를 하셨다.

아버지는 고립된 국가에서 사는 것보단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도 옳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께 어머니는 치매가 왔냐고 하시면서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한다고 하셨다.

3개월 지난 2007년 7월 12일 내가 떠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집을 나서자 엄마가 4km가 넘는 거리를 따라오면서 가지 말라고 고생 한 번 해본 적 없는 너가 한국 가서 어떻게 사냐고 계속 붙잡으셨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면서 내가 울고 있는데 나의 선택에 후회를 하지 말라고 돌아서시고 되돌아 보지 않으시고 가셨다.

나중에 들으니 엄마의 우는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 아파할까 집에 가서 엄청 우셨다고 한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많이 난다.

나는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했고 중국에 있는 친척 집에서 3개월 머문 뒤 중국을 떠나 태국을 거쳐 2008년 1월 8일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 내가 OO에 도착한 것은 2008년 4월 17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삶은 북한에서 생각했던 삶보다 훨씬 더 힘겨웠다.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온 돈은 브로커 비용으로 다 주고 나에게 4만원이 남았다. 돈이 없으니 나는 5월 1일부터 탈북민의 소개로 주유소에 취직을 했다. 사장님도 사모님도 탈북민이라는 차별 대우를 안하시고 참 따뜻하게 해주셨다. 하지만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탈북민이라고 무시하고 일하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차별하고 차가운 눈길도 많이 받아왔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여 북한에서 겪어보지 못한 영양실조에 걸려 쓰러져 여러 번 응급실에도 실려갔었다. 몇 번이나 죽으려고도 생각하고 북한에서 떠난 걸 후회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꿈

돈이 없는 설움이 무엇인지를 대한민국에 와서 겪었고 돈이 없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하지만 나는 이겨내야 했고 돈을 벌려고 일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주유소가 여자가 일하기는 천한 곳이라고 했지만 주유소는 잘 사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어서 잠깐잠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성격과 성향을 읽을 수가 있었다.

내가 하나원에서 앞으로의 목표와 꿈에 대해서 10년 후 내 집 마련이라는 큰 꿈을 적어놓고 나왔었다.

집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모르고 그런 큰 꿈을 그리다니...

그러나 나는 낮에는 주유소,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하루 3시간을 자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돈을 모아 나갔다. 정말로 10년 후인 2018년 6월 나는 모은 돈으로 은행 대출도 조금은 받았지만 내 집을 사게 되었다.

그 후로도 나는 식당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일을 많이 배웠고 3년 후인 2021년 6월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다.

비록 남편과 둘이서만 일을 하지만 나는 어엿한 식당 사장님이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루하루 내가 사장님이 된 것이 실감이 난다. 그렇게 돈을 모아 지금 나는 내 집을 마련하였고 내 가게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당당하게 일을 한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게으른 사람의 꿈은 없다>, <부지런한 사람의 꿈은 있다>고 말씀하셨다.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 더욱 느낀다.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살아가려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지금은 내가 대한민국에 온 걸 너무 다행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꼭 찾아온다.



나의 삶에 포기란 없다.

저는 2014년 7월 16일 하나원을 퇴소하고 경기도 OO시에 정착하여 살다가 현재 전남 OO군으로 내려와서 정착하여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OO군 동네에서 통발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와 하나원 생활을 할 때는 빨리 나가서 남한이라는 곳의 자유를 맘껏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착 나와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자유였습니다. 여기말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마트를 갔다 버스 노선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한참을 뱅뱅 돌아서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선 은행에 갈일이 없다 보니 은행에서 돈 찾는 방법조차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이 무지한 저희들을 위해 정착도우미 선생님들과 전남하나센터의 선생님들이 일대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점차 적응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잊혀지지 않은 OOO 선생님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함께 해주시고 상담 또한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착생활을 하던 중 내가 이제 몸이 완치되면 무슨 일을 할까 하던 생각을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나의 삶에 포기란 없다.

북한에서 내가 하던 일이란게 바다에서 배타는 일밖에 없었기에 한국에 왔는데 내가 딱 시내에서만 매달려 산다고 내 삶이 위대해지는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지방, 산골, 농촌 어디든 가보자 하고 길을 찾아 떠나다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전남 OO군 OO읍이었습니다.

그런데 난관은 또 찾아왔습니다. 북한에서처럼 바다에서 배타고 일을 하였는데 허가증이라는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허가증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고 바다에서 일을 하며 해양수산 검열단속에 걸리고 금어기기간을 잘 몰라 벌금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바다 일을 할 때마다 나서서 도와주고 이끌어 준 곳은 전남하나센터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의 김OO 선생님, 전남하나센터의 이OO복지사 선생님께서 저의 어려운 정착생활에 나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며 도와주셨던 OO경찰서 신변보호담당관과 자주 연결을 하여 오늘까지 오게되었습니다.

현재는 통발어업으로 고기, 낙지 등을 잡아도 판매 활로가 좋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먹고 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힘들게 잡았는데 헐값이 넘기는 제 맘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남하나센터 복지사 선생님이 도취업활동지원사업 자격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OO군의 특성상 많이 찾는 직업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배우기로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한 번에 합격을 하였고 일을 시작하고 나니 대상자들의 집들이 거리가 멀어 운전 필수인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의 그 어려운 필기도 한 번에 붙었습니다. 지금은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것 마냥 운전을 하면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일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나의 삶에 포기란 없다.

전라남도 취업활동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요양 보호사자 격증 ,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낮에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밤에는 바다의
어부로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신 대한민국과 우리 탈북민들을 위하여 하나원,
전남하나센터 , OO경찰서 신변보호관 , 그리고 수많은 자격증 지원을
해주는 전라남도 , 배움의 학교 , 남북하나재단 관계자 모든 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OOO 펜션에 무지개 뜨는 날

저는 북한을 떠나 OO에서 살다가 몇 달 전 여기 OO로 내려 와서 OOO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OOO입니다.

고향인 북한을 떠나 여기 남한으로 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고비를 넘으면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굳이 왜 북한을 떠나 여기로 왔냐고 물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제가 나서 자라고 정들은 고향을 떠나 타향으로의 발길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시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이별은 더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지금도 두고 온 자식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생각하면 잠도 쉬이 들지 못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피가 없고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없다면 사랑하는 자식들을 두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 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속 으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라고 하면서요.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결코 쉽고 평탄하지만은 않았습시다. 험한 산도 넘어야 했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메콩강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서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하기로 소문난 저희 아들은 저에게 컴퓨터를 사달라고 했 습니다. 컴퓨터를 사 줄 돈이 없었던 저는 엄마가 돈 벌어서 컴퓨터 사줄게 라는 대답 만 해놓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집에서 저를 안타까이 기다리고 있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문득 소스라치게 깨어납니다. 마음속에 항상 짐을 안고 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 여행도 다니고 자신을 위해서 살면 좋지 않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 , 그리고 귀여운 어린 자식들에게 마음의 큰 빛을 진 제가 어찌 그들을 지워버리고 맘 편히 저 혼자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눈물을 삼키면서 버텨 왔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갖고 색다르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그들에게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무리 노력하며 열심히 살려고 해도 북한사람이라는 편견을 완전히 깰 수는 없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이 있었을 때는 어딜 가도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심한분들은 북한사람은 보면 죽이고 싶으니까 저리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닌데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지낸 그 긴 시간이 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의 강토에서 한 두 해도 아니고 오천년을 같이 살아 온 우리 민족이 민족 분단의 아픔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이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북한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여기가 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한국이 맞냐고 되물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적대국으로 인정한 현실속에서 내가 찾은 답은 누가 뭐래도 나만의 길을 갈 것이다 였습니다. 네 , 그래서 저는 힘을 내었습니다. 기다리는 형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힘을 내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그마하게 000펜션이라는 민박업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펜션을 하려고 한다고 하자 그게 말처럼 쉽냐 ,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한국에 와서 산지 몇 년도 안 된 네가 무슨 펜션을 한다고 하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북한사람이라 우습게 보지 말아. 당당히 살 수 있다 라고 처음에 시작하려 할 때 동네 어르신들은 얼굴도 하얗고 몸도 가날픈데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걱정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돈이나 벌다 가겠지라고 하시며 마음도 주지 않았습니다. 허나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시고는 여기서 살려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 어르신들이 저에게는 엄마고 아빠와도 같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을 가꾸면 와서 조연도 해주시고 심어도 주시고 씨앗도 갖다 주시고 밑반찬도 갖다 주시고 그렇게 저는 동네의 딸이 되어 버렸습니다. 맛있는 거 생기면 같이 밥 먹자고 불러도 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맙고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홍보도 많이 안되고 해서 찾아오시는 손님이 많지 않아 걱정하면 잘 될거라고 너는 잘 할거라고 응원해주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동생들 ,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행복을 가꿔 갈 소중한 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 날을 그려보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북한이랑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000 펜션에 무지개 뜨는 날

그 날 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크면 박사가 되겠다던 아들의 소박한 소원 , 컴퓨터를 사주지 못하고 떨어지기 싫다는 어린 아이들에게 금방 갔다 올게 , 말을 남기고 떠나 온지 어언 십 이년. 세월은 흐르는 냇물처럼 빠르게도 흘러갑니다. 이 세월을 멈출 수가 있다면 , 아니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딸이 보고 싶다고 눈물 흘리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저는 바래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려 달라고 그토록 애원했건만 아버지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리운 가족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내가 나서 자란 내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통일된 조국 , 백두와 한라가 하나가 된 내 나라 땅에서 마음 놓고 오고 가며 살고 싶습니다. 분단의 비극을 끝내고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며 오늘을 열심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OO가 저의 제 2의 고향이 되고, 고향분들과 함께 금강산으로 여행을 갈 행복한 상상을 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휘파람을 불며 날려봅니다.

매일이 "OOO 펜션에 무지개가 뜨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한 00시 공무원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00군에서 태어나 17살까지 살았습니다. 북한은 17살이 되면 누구나 군대를 가서 10년 동안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갈 날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군대에 가면 고생할 것이 뻔하고 혹시 죽을 위험이 있을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탈북하여 한국에서 정착하여 살고 계신 외삼촌께서 어머니께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니가 군대 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니 우리 외삼촌처럼 탈북하여 남한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살면 살겠지만 군생활도 어려울 것 같고 또 10년 동안 집을 떠나 살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아 어머니께 함께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17살 2월 달에 남한에 있는 외삼촌께서 보낸 브로커를 따라 우리 가족 어머니, 남동생과 함께 꽁꽁 얼은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 3일정도 숨어 지내다가 밀항하여 미얀마로 넘어가서 일부러 잡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탈북하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교도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니 미얀마 당국이 우리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저는 행복한 00시 공무원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원을 퇴소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용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남한에서의 생활도 잘 적응했습니다. 용접하는 일을 1년 동안 배우고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용접하는 것을 3년 동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흘 후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얼른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주변에서 성실하다고 칭찬하시면서 공단 회사에 들어오라고 스카웃 제의가 들어와 공단에서 용접일을 5년 8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많이들 이빠해 주셨습니다. 모두들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그곳 어른들은 인정도 많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시며, 기쁘게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 어른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께서 00시 도시관리공단 시험공고가 있는데 한번 공부해서 도전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하던 공부를 할려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마음먹고 시작한일 끝까지 해보리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과 안되도 할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안될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는지 합격을 했습니다. 뭘 듯이 기뻐합니다. 아마 북한 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가산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저는 행복한 00시 공무원입니다.

201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00시 도시관리공단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기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전남하나센터 00지소에 들러 쓰레기도 정리해주면서 봉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저는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동아리 족구동아리와 볼링 동아리의 멤버로써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북한인 남한 사람입니다. 00시 공무원으로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실히 일하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라남도 정착하여 공무원이 되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복한 00시 공무원입니다.

저는 행복한 북한이탈주민 00시 공무원입니다. 앞으로도 쭉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희망이 된 한국생활

저의 고향은 함경북도 OO입니다.

철도에서 일을 하며 남편과 아들 이렇게 세 식구가 힘들게 살았습니다. 말그대로 배고픈 고생, 땀나무 고생을 하며 겨우겨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당뇨합병증으로 사망을 하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하도 굶으면서 힘들게 사니까 이대로면 굶어 죽는다고 어디가서 빌어먹고라도 살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을 찾아 반년을 찾아 헤매이다가 겨울이 와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국에 가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해서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렇게 10년을 중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런 세상이 있나 싶을 만큼 믿기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제게 전남하나센터에서의 다양한 지원은 한국생활 적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티오쇼를 관람하고 종일 잠을 못잤지요. 또 한국에서 만난 남편과 함께 한 영광 마음수련원에서의 체험은 꿈에서나 가능한 신혼여행이었고 전라남도 사회정착지원은 넉넉하지 않은 생활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운전도 하고 싶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싶은 제게 전남하나센터에서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고 저는 그 바램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또 눈이 좋지않은 저에게 재능기부 사업으로 밝은 안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셔서 이 좋은 세상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저희 부부는 넉넉하진 않지만 이북이나 중국에서의 삶과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평화롭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이웃들은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무어냐고 묻곤 합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말하였습니다. "셀 수도 없이 좋은 것이 많지만 땀나무 걱정없이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북에 있을 때는 함께 해주며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기동차게 고생했어요. 땀나무 한 짐을 하려면 하루종일 끼니를 거르며 산 속을 해매고 다녀야했어요. 한국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산을 다니고 산 속에 나무가 썩어나도 누구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고 널려 있는게 땀나무.... 이런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운에 희망이 되어 함께 해주는 남편.... 북에서 이역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왔다고 저를 위로하고 마음써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이런 남편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싶어 일을 하고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겐 직업을 가진다는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이 가정을 지키며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여 정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참된 희망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는 분들과 이웃에게 보답하는 것... 비록 늦은 나이에 한국에 왔지만 남편과 함께 꾸려가지고 사는 이 가정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내가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잘 정착하는 것이지요.

참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한국에 온 모든 탈북민들이 이 나라에서 먼저 온 통일민이라 생각하고 더불어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밥 한 그릇

제가 살던 고향은 OO이라는 곳입니다. 사방이 산이여서 말그대로 산골입니다. 어릴 적 풍요롭고 티없이 맑은 웃음을 지으며 산으로 강으로 뛰어놀고 온동네 꼬마들 모두 함께 웃으며 살던 산골 동네이다. 그러던 저도 13살에 김일성의 10대원칙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잘살던 저희 집은 어느 날 아빠는 반동으로 즉 정치범으로 되었고 그로인해 농촌으로 추방되어 소동 굴러다니는 창고를 주며 우리 4형제와 엄마를 살게했다.

가장 맏이인 저는 여자이지만 13살부터 소녀가장이 되어 산에 올라 나무를 찍고 자르고 지고 내려오고 두꺼운 나무를 굴러 내려오고 집안의 모든 큰일을 다하며 소녀가장으로 살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고의 기술자인 아버지가 반동으로 몰려 그 다음부터는 늘 뒤에서 반동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놀리고 왕따당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더라구요. 저도 참을 수 없어 싸우게 되고 인생이 극과 극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농촌에갔지만 먹을 것도 땀것도 내가 하지않으면 없게 되니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산에 가서 땀나무를 하고 풀을 뜯어와 밥하는데 보태곤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꽃이었네요.

밥 한 그릇

세월이 흘러 김일성이 사망 후 미국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배급을 못준다고 자체로 해먹으랍니다.

장사도 모르고 어디가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 그 후로는 풀을 뿌리채 뽑아먹고 남의 집 밭 곡식들을 훔쳐먹고 온 동네가 난리였죠.

촌에서 소를 잡아먹고 총살을 당하고 기계와 설비의 부속들도 뜯어 팔아먹다가 감옥 가고 나라의 전기선들이 동으로 되어있어 그걸 몰래 잘라서 팔다가 들켜 감옥도 가고 총살도 당하고....나라의 재산을 다치지 말라고 하는데 황금은 중국인들에게 팔아 먹어서 그 무게에 따라 30발의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참으로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말이 사람사는 곳이지 무슨 잡귀신들이 사는 거 같았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굶어죽고 어른들은 한푼이라도 벌려고하다 외지에서 굶주려 죽고 오지 못하고 부모를 기다리다 애들끼리 굶어죽고...

제가 살던 아파트가 4층짜리 한 개층에 12집 총 48세대였는데 6개월정도에 집이 절반이나 비었습니다. 상하수도 없고 앞의 강에서 물을 길어다 먹고 다 쓴 물은 다시 지고 내려와 1층에서 버리고 화장실도 1층 밖에 있으니 설사하면 내려다 바지에 지리고..생각만해도 참 끔찍하네요... 어디 좀 갔다오는 시간이 길어지면 언제 눈치채고 집의 모든 물건과 먹으거 입을거 다 도둑질해가고 심지어 델감을 할 기운이 없어 못하니 문과 창문이 나무로 되었는데 문과창문까지 다 뜯어가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보니 더는 살고싶은 희망이 없어 죽으려고 많은 짓을 해봤지만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중국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하여 떠났는데 차표 살 돈도 없어서 굴러 다니는 비닐조각들을 주어다 하나하나 바늘로 꿰매서 내몸을 감쌀 수있게 만들고 열차 꼭대기에 기어 올라 떠났죠.

밥 한 그릇

열차 꼭대기에도 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굽이 길을 돌 때 면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고 몸을 세우다가 전기줄에 튕겨 감전으로 떨어져 죽거나 피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여하튼 어찌 OO까지 3일만에 왔고 다시 개구멍으로 빠져 한 20일간 정착을 하고 시간대별 열차와 군대들의 교대시간도 모두 알아내고 하여 OOO으로 가는 열차를 몰래 타고 오르고 계단에 몸을 숨기고 가다가 잘 봐놔던 장소에서 달리는 열차에 뛰어내려 압록강을 건너 중국장백산으로 올랐고 산속에서 살다가 풀만 뜯어 먹으니 죽을거 같아 그냥 내려왔는데 하루에 산을 11개 넘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밥 한그릇 때문에 온 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을 알게 되었고 3번의 시도 끝에 4개국가를 거쳐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해방시기를 만난거죠.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 때문에 온 길이 제 인생을 해방시키는 길 된 것입니다.

비록 생각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시간이지만 지금 제가 느끼는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시간이지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대한민국에 들어와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전라남도 OO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와 숲이 반기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 OO..

OO은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해도 좋을 만큼 제게 많은 기쁨과 행운을 준 곳입니다. OO에서 살며 좋은 이웃들과 동료들 그리고 탈북민들을 위한 남북하나재단과 전남 하나센터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받으며 대한민국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에 입학하여 하고 싶었던 공부를 실컷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쁜 순간들이었고 현실인지 꿈인지 다시한번 제가 있는 곳이 대한민국 땅이 맞는지 의심해보기도 했습니다.

방통대를 졸업하고 중국어 강사로 12년을 근무하고 미래를 위해

밥 한 그릇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1년 동안 근무를 하며 너무나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1도 보탬 것이 없는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살라고 조건없이 받아주시고 집도 주시고 천국에서 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밥 한 그릇을 먹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찾아 온 대한민국,
과거의 저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엔 없지만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도우며 제가 받은 것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웃들을 돕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집 가족사

내가 탈북한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1998년 2월의 겨울 두만강 얼음물을 가르고 험난한 사선을 넘어서 중국 땅에 왔습니다. 2살배기 아들을 두고 혼자 몸으로 죽기 살기로 하고 와서 5년을 중국에서 살다가 2003년 3월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친구의 소개로 북한 아저씨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북한에 사는 아저씨 딸 2명을 데리고 와서 공부도 시키고 대학도 졸업시켜 지금은 시집들도 잘가고 자기 맡은 일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도 잘 커서 고등학교,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는 중국 가서 축구선수로 맹활약도 해서 2등이라는 결실도 보았구요. 대견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낳아서 5년 만에 한국에 데려와서 유치원 시절부터 지금은 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도 갔다 와서 복학중이구요. 앞으로 군대에 다시 나가서 생활한다네요. 그리고 아저씨를 만나서 낳은 20살 딸은 간호대학 2년이 되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40살에 늦둥이로 낳아서 어느새 저렇게 커서 아빠 엄마를 위로하는 딸이 되었을까 감동입니다.

저는 수술을 열 번 한 환자여서 일은 못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우리집 가족사

대한민국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 하다가 가정을 잘 꾸려나가는 것도 나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정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한쪽 수레바퀴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18년 전에 한국으로 데려온 우리 시누이 가족들에게도 정착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지금은 그 분들도 남부럽지 않게 우리들 곁에서 잘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다 잘살고 있는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뻘뻘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큰소리치며 삽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저를 집안의 통치권자로 위대하게 잘 대해 줍니다. 여기에 나는 만족하며 삽니다. 가족이 모두 건전하고 부지런하게 나라와 가정에 충실하고 잘 사니 그 이상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집 아저씨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도 덕망을 쌓고 삽니다.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은 우리 가정 보고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부러워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를 묻고 사는 자기네들도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이 우리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니 응당 보답하며 사는 길이라고 때로는 강연하러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정세를 알리고 북 속에서 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널리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 길만이 보답하는 길이고 쪽 이대로 변함없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열심히 잘 사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엄마로써 아내로써 한 나라의 여성으로써 우리 가족이 근심 걱정 없이 살게끔 뒤에서 뒷바라지를 잘하게끔 노력하며 잘 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24. 6. 25. 000드림.



자유민주주의 한국

나는 함경북도 OO군 OOO에서 1남 4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OOO에서 유치원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5년 졸업하고 함경북도 OO군 OOO 도자기 공장 기술준비실, 외화별이 5호 관리소, 북부지구 탄광 설비보수 사업소 주철 관련된 일과 염소 기르는 생활하다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서 3년 살다 중국 국민 아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으로 중국 공안국에 잡혀 함경북도 새별군 정치보위부 구류장에서 한 달 짐승만도 못한 생활을 하다 다시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살다 3년 만에 한국 오는데 성공했다.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잘 먹고 잘 살아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많이 고민했다. 고민 끝에 결정하고 자동차 대형 면허 1종, 굴착기, 지게차, CO2 용접, 요양보호사 국가 기술 자격증 취득했다. 지금은 OOO에서 큰 배 만드는 일하고 있다.

OO에 정착하여 일하면서 생활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일해서 번 돈으로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나의 개인 자동차까지 가지고 있다. 얼마든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 나를 받아준 대한민국 정부 정말, 정말 고맙다.



나의 여정

사람들은 누구나 언약을 하지만 너무 쉽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사람 죽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더 엄격한 사람이 생활에서 인생에서나 빛을 바랄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님에게 한 언약이 꼭 성공하여 즐거운 모습으로 뵈우리라고 한 언약으로 어려울때나 슬플 때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이 나의 신념이기도 하고 지조이기도 합니다.

2009년 7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장마철이라 물이 불어 위험천만한 두만강을 건너면서 내가 자라나고 조상의 무덤이 있는 이 땅을 밟을 날이 과연 언제일까 생각하니 나의 마음에도 슬픔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9년 8월 27일 중국, 미얀마, 태국을 거쳐 대한민국 사회의 나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OO군에서 OO면, OOOOO면에서의 염전일, OO항에서 민업잡이, 건설장, OO직업학교 폴리텍 대학, 조선소 용접 깊은 계곡에 들어가 봐야 높은 정상에서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듯이 시련이 없이 새로운 진미를 알 수 없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의 여정

이 과정에 홀로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쳐다보며 상상도 못하는 타락과 술로 많은 교훈도 남기었습니다.

내가 쉽게 생각하고 단념하는 사회가 아니라 많은 수공과 시간을 바쳐가야 하는 사회 사상과 정견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문화의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생명과도 같지만 습관을 한순간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결심한 것이 술이다, 술을 끊지 않으면 나의 모든 것을 잃는다. 이를 위해서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나 책을 볼 때나 열심히 보고, 치료를 받을 때나 피곤이 몰려오면 잠을 자고 정신적 소요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게차, 굴삭기, 전기기능사, 대형 면허와 같은 기술자격증을 가지게 되는 긍지를 느끼며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은 담배 술을 끊고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와 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은 여정을 잘 살려가기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새 사회에 적응한다는 것은 쇠덩어리를 가는 바늘을 만들자면 많은 공력이 필요하듯이 사연 많고 한 많은 인생의 기로에 좌절이 아니라 낙관적으로 웃고,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 삼아 좋은 것은 삶의 발견이 보석처럼 기쁨을 나누며 혼자서라도 즐겁게 이겨낼 줄 아는 방법을 찾고 오늘은 망망대해의 작은 돛배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짐배가 되는 그날을 위하여 어디서 어떻게 어디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는 희생의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남한 정착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1년 12월 8일 자유의 땅, 한국에 온 000입니다.

저는 함경북도 00에서 1960년 8월 28일 태어나서 성장 기간 걸쳐 군대에 입대하여 10년간 복무 마치고 당의 부름을 받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간다면서 무리 배치되어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탄광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 중대장(직장장)으로 상원으로, 김정일 선물까지 받으며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 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굶주림에 시달려 할 수 없이 중국에 가서 돈 벌어 오자고 하던 것이 중국 땅에서 잡혀 북송되어 모진 고문과 강제 노동속에서 북한 사회 파멸을 느껴 다시 탈북하여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육 기간에 걸쳐 2002년 3월에 전남 00에 배치받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00 전남 병원 장례식장 염사로 10년나마 일하면서 사랑하는 두 딸을 먹을 걱정 없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큰 딸은 00대안학교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둘째 딸은 00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남한 정착기

두 딸은 한국 사위를 만나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받아주신 한국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중 건강검진 받고 2022년도 폐암
진단받고 1년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남 OO병원에서 수술받고
교수님의 정성과 높은 의술에 의하여 지금은 건강 회복되어 다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었다면 진단을 받을 수도 없고 진단받았다고 해도 치료 받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탈북자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모두 잘 살거라 믿습니다.

2024년 6월 25일 OOO 드림



OO을 사랑하는 여자

저는 함경북도 OO군 OO구 OO반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2남 2녀로 그 중 차녀입니다.

아버지는 OO탄광 행정부정장으로 어머니는 OO관리소 (외화별이직장) 에서, 다른 집보다 잘 살았습니다. 저는 71. 6. 2일 태어나 유치원 2년 생활을 무대에서 많이 살았고, 인민학교, 중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집단진출로 OO농장(OO)이라는 농장으로 탄운하였습니다. 그 농장으로 말하면 두만강을 배를 타고 중국과 인접하고 있는데라 군인들이 많이 다니고 살벌한 곳입니다. 거기서 농사는 옥수수만 생산합니다.

겨울에는 적위대훈련(12월) 1달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총, 배낭엔 필수품) 혼인 신고하면 적위대훈련에서 탈퇴합니다. 훈련 생활 9년 하였습니다.

결혼은 28살에 동포라는 시골에 시집가서 별일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술주정뱅이 신랑을 만나 못해본 일 없이 닥치는대로 다하였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매일 같이 신랑 빚 때문에 힘들게 살았고 술이 없으면 폭행하고, 거기에 굶기는 일수고 더는 살지 못하여 친정으로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친정도 눈치살이에 너무 힘들게 살던 중 친구의 소개로 중국으로 도강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OO을 사랑하는 여자

중국에 와서도 한 번 잡혀 복송하였고 다시 중국으로 도강했으나 갈 곳 없어 헤매던 중 한쪽한테 팔려 살다가 우연히 북한 여자(중국에서 8년 살았음) 만나 서로 얘기하다가(나 외삼촌 연길에 있는데 좀 찾아달라고) 부탁하였음. 그 여자 도움으로 삼촌과 만나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언니가 남한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녁으로 언니와 통화를 매일 같이 하면서 한국을 갈 생각, 결심하였습니다.

중국은 아무 때나 경찰들이 잡으러 오기 때문에 항상 가슴 졸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자! 가자! 한국으로

그리하여 중국에서 3년, 2006년 1월 내몽골로해서 몽골에서 3개월 만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하나원 생활 3개월 마치고 서울에서 언니하고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돈벌기로 약속하고 살던 중 먼저 OO으로 간 아는 동생 소개로 신랑을 만나게 됨, 신랑 하는 사업은 보일러 사업입니다.

같이 서비스도 하고, 양봉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 몸에 엄청 큰 수술도 여러 차례 하였고 시어머니도 모시다가 치매와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같이 생활하였고, 돌아가신 후 지금은 회사생활도 재밌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다보니 칭찬도 많이 받고, 외로움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봉사도 하고 싶어 시간 되면 하곤 합니다. 한국 생활이 참 재밌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마지막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2024년 6. 23. OOO 씀



과거 현재 그리고 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 000 모, 000의 차남 둘째 아들로 태어나 초, 중, 고와 10년간의 군복무 생활을 마치고 전역과 동시에 2011년 12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라오스-태국 제3국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정원과 국방부 조사 과정 후 2012년 10월 4일 통일부 하나원 수료 과정을 모두 마치고 현재 전남 00에 살고 있는 169기 000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 하나원 수료 후 정착 과정 중... 방황하고 좌절하며 또한 문화 격차와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루하루 절망에 빠져 도태된 생활을 추구하며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온 제2의 삶도 포기할 생각과 못 견디게 그리운 처, 자식 생각에 눈물 속에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며 무의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지나면 다들 정착에 성공한다는 기간도 저는 어언 10년이 넘게 걸려서야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 절망속에서 헤매일 때 저를 다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고마운 분들이 계십니다. 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늘~ 곁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북한이랑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과거 현재 그리고 나

그리고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따뜻한 위로와 격려로 응원해주신 고맙고 감사한 전남 하나센터의 000 선생님, 신변의 안전을 책임지시고 세심히 보살펴 주셨던 000, 000 담당 형사님! 특히, 가정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세라 잦은 방문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000 선생님!

또한 방황했던 저의 손목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대형면허까지 취득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좋은 회사도 취직시켜 주셨으며 현재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회사 생활도 잘 적응하고 인정받는 직원으로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2년이라는 나날은 저에게 실패와 성공이라는 서로 다른 두 단어를 맛볼 수 있게 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5년이면 정착에 성공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면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말이죠! 결승선에 빨리 도착한 토끼면 어떨고 늦게 도착한 거북이면 어떨까요?! 결국엔 결승선에 도달하면 되는거죠! ,, 지금의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늦어도 괜찮아, 저는 쓴맛, 단맛 다 보았고 실패와 좌절, 정말까지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왔잖아!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 슬플 때도 그래도 너는 지금껏 잘 버텨 왔잖아!

앞으로는 더 행복하자, 꽃길만 걷자!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부터 다시 결승선을 향해 뛰지 않고 뚜벅뚜벅 차분히 걷고자 합니다. 도착의 과정은 비록 알 수 없지만 지금껏 저를 믿고 늘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찬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꼭! 성공하여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분들께 심신 진심으로 되는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전해 봅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과거 현재 그리고 나

끝으로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불편함 없이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자신들의 본분을 다해 지금 이 순간도 격무에 수고하시는 하나센터 모든 선생님들께 다함 없는 경의와 사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날 방황했던 저의 삶과 현재까지의 행복한 오늘 그리고 꽃길만 걷게 될 휘황찬란한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떠올리며 진솔하게 저의 마음을 담아 다소 적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남 하나센터의 융성 번영과 모든 선생님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의 귀하신 몸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온 가족의 행복하기를 다시 한 번 심신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6. 필자 000



나의 제2의 고향 OO

2007년 대한민국에 와서 내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을 하나원에서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갈 곳을 여기 저기 알아보고 찾다가 전남 OO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는 OO에 국민임대아파트가 안 나온다고 하며 담당선생님이 전남 OO로 가라고 하기에 저는 OO는 싫어요 하고 고개만 흔들고 있었습니다. OO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면서 한 달 넘게 기다리다 OO에 집이 나왔는데 그래도 가고 싶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두말없이 가겠다고 하고 하나원에서 퇴소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2007년 OO에 와보니 너무 나도 편한 마음이 들었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면서 주변인들의 소개로 OO에서 애들 아빠를 만나 결혼을 하고 첫 아이 임신 중 OO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도배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둘째 출산 후에는 OO시청자격증지원으로 대형운전면허자격증도 취득하여 해 보고 싶었던 중장비운전기사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엄마가 되었고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00시청지원 건강검진도 받아 아픈 부분도 빨리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가 전남 00에 잘 적응하고 열심히 잘 살수 있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니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색안경으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잘 적응할 수 있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전국에서 전남 00이 제일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아이 엄마로써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애에 우리 아이들을 대한민국 전남 00에서 태어나게 한 것이 제가 한 일중에 제일 자랑거리이고 두 아이 엄마로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올해에는 축구를 하던 작은 아이가 축구를 그만 두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전남 하나센터의 사업인 전라남도지원-통일새싹 학원비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제일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아이들 학원비까지 지원해주는 곳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지원해주는 전남하나센터 선생님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돈을 지원해주시는 전라남도도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요즘은 아이들도 많이 안낳고 그러는 세상인데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욱 더 많은 지원들이 있다 보면 젊은 세대들도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들도 출산도 많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솔직히 아이를 낳아도 지원을 다 못해줘서 그게 부모로써 제일 힘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00에서 태어난 저희 두 아이들이 전남 00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전라남도과 전남하나센터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비결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19년차 000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살다가 전라도에 내려와 거주 한 지 3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배로 다니던 섬을 육교, 대교로 개통해 육지와 연결하여 교통이 원활해진 지역으로 살기 좋고 먹거리가 풍부하여 원천을 들이지 않아도 자기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가끔씩 고향의 향기를 느낄 때가 있어 마음의 치유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살게 된 이유는 전에 일했던 직장이 태양광 건설 회사였고 몇번의 출장으로 전라도에 오게 되면서 지인의 소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군 소재지 마을이며 어렸을땐 잘 살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시기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힘들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중국으로 탈북하고 도강하며 왕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사람으로써 탈북하여 돈벌어 다시 고향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으로 시련 과 고통을 견디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TV와 언론에 익히 노출 되다보니 다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함과 분노, 북한 사람을 하대하고 신고 할거라는 협박으로 아무 반항도 못하고 참아야만 했던 상상 못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주변의 신고로 복송되었고 보위 부 단련대를 걸쳐 6개월의 고생 끝에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재탈북을 하여 중 국, 몽골 제3국을 걸쳐 자유의 땅 대한민국 품에 안겼습니다.

국정원 조사, 하나원 교육을 받으면서 결심했습니다. <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 부모, 형제를 꼭 모셔 올거라고... > 그렇게 하나원 졸업 후 새로운 집을 배정받고 지역 적십자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전입신고 마친 후 집에서 쓸 수 있는 간단한 필수품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물품 정리를 하다보니 화장실 거울에 비쳐진 내 모습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져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나 혼자 홀로서기라는 생각에 3일동안 온갖 서러움과 두려움에 후회도 들어 그냥 눈물만 하염없이 쏟아졌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 압박과 시달림, 앞으로 살아 갈 일들과의 부담감>. 저는 부모 형제 모셔올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고 돈 벌기로 결심한 채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같이 온 일행들이 서울에 배정을 받은 상태였고 형사님을 통해 그분들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차로 벼룩시장에서 급여를 많이 주는 곳이라면 다 전화를 해봤고 전화하면 말투 때문에 매번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억양과 사투리로 고향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중국 사람이라는 오해도 받았지만 중국 사람이 아닌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신기해 하듯 저를 아래 위로 훑는 시선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원 안에서 생각했던 나의 꿈과 밖에서의 현실은 호락호락 하지않았습니다.

그 후 식당 알바를 어렵게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가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한국 사회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자식들이 커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고민 끝에 맞벌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고 때로는 등원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업고 도보로 학원에 왕복1시간 30분 거리를 다니면서 (15년전 당시 시골 교통 상황은 안좋았음)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학교 과정을 걸쳐 사회복지사, 유아 복지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습니다.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경력이 없어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칼국수 집에서 3년을 일했고 갈비집, 족발집, 닥치는 대로 뭐든 해왔습니다. 또한 동업과 실패로 마음의 상처도 받았고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께 보내 드린 돈도 사기를 당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인터넷으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5년 간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로 고열과 몸살기로 누워 있을 때 초등학교 딸이 이런 얘기를 해었습니다.

<엄마가 아프고 엄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저는 울면서 일어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쓴 것이 뭐가 있는지, 과연 내 자신을 위해 투자 (맛있는 음식, 옷, 배움, 여가활동) 한 것이 뭐가 있었을 까?

이런 저런 생각에 그동안 애쓰며 살아 온 과거에 대한 회의감과 허무함에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 내고 보니 현재는 안정적인 사무직에서 모두에게 인정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의 삶에 만족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노력은 성공의 비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시골이라 남들은 여가활동이나 쇼핑, 문학 활동에 불편한데 뭐가 좋냐고 묻지만 저는 맘이 편해서 좋고 복잡한 도시보다 공기 좋은 지금 이곳이 저에겐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생겼고 지금은 타인을 배려하고 자원봉사와 나눔을 통해 항상 내 자신을 배워가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삶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행복 해야 그 행복을 타인에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 대한민국

저는 탈북자입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시기때 두명의 아들이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갈 곳은 있으나 그때는 모든 가족들이 굶고 하루하루 살아가니 저를 반길 가족은 단 한명도 없었는데, 그래도 우리 큰언니가 자기도 아프고 힘들어도 저를 받아주어 같이 살았 습니다.

당시 저는 영양실조로 많이 아팠는데 형부가 자기 누나의 집에 큰 조카를 보내어 찰강냉이쌀 한배낭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죽도 써먹고해서 몸이 어느정도 회복이 되어 그때부터 장사란 장사는 다해봤습니다.

어느날, 언니의 친구집에서 러시아를 갔다 와서 풍선 장사를 하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도적을 당하는 바람에 또다시 장사 밀천을 만들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통장사, 구리장사를 하다가 중국을 알게 되어 이십번 고초 끝에 중국으로 가게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 조선족과 살게 되었는데, 중국 감옥에 잡혀서 북송할 위기에 닥치자 같이 살던 조선족이 여기서 더 살기는 힘들 것 같으니 한국행을 하라고 마련해준 돈으로 결국은 탈북에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국정원에서부터 계속 아파 국군병원에서 지냈으며,

하나원에서 공부할 거의 하지 못하고 병원 생활하다가 하나원에서 나와 000에 임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집과 먹을 것이 있으면 잘살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계속 안좋아 병원생활을 하다가 보호자가 없으니 큰병을 고치려면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았다고 생각하던 찰나 000 어느 교회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00가 고향인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소식에 내려간 00가 제가 살았던 북한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0에 살고 싶던 저의 마음과 아버님 곁에서 지내고 싶다는 남편의 마음이 맞아 00로 내려와서 서로 의지하고 잘살았습니다. 그렇게 산지 14년 됐는데 남편이 암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도 사고 예쁘게 꾸며놓고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에 저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투병 끝에 남편을 결국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도 같이 끝내려고 자살 시도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정도 집에서만 지내던 제가 안타까웠던 윗집에 사는 보건소 소장님의 따뜻한 말과 위로를 통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민주평통회장님과 총무님, 의원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저를 돌봐주신 격려 덕분에 현재 주말에 교회를 나가고 마을 분들과도 소통도 하면서 즐겁게 살아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몸이 좋지않아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갈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00에서 남편을 그리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 탈북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있었으면 저같은 인생 벌써 굶어죽었을텐데 나이가 들고 아파서 일을 못해도 국가에서 생계비와 쌀, 겨울이 되면 보일러 기름도 주고 군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저를 찾아봐줍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담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

살기좋은 나라 , 대한민국

하나센터에서도 가정방문을 하실때마다 저의 말을 다 들어주시면서 따뜻한 격려도 해주고 오실때마다 꼭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음료수와 등등 저의 필요한 것들을 잘 들어 주시는 따뜻한 분들 때문에 정말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회복 하여 오래오래 성일되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터민을 받아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픈 저를 혼자서라도 잘 살 수 있게 해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행복한 새세상에서 더 오래살아서 통일을 빨리 되기를...



함께라면

고향 함경북도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그때 시절 너무 평범한 어린시절은 아픈 기억보단 부모님의 공부해라 학습지도로 많이 힘들었던 기억과 개울에서의 새끼고기 잡으며 놀고, 항상 평범한 일상 속 존재로 학교를 다녔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일상 속 기억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김일성께서 돌아가신 그 시기부터 나라가 고난이 시작되어 힘든 슬픔과 어린아이들의 배고픔, 추운겨울 가볍게 걸친 우리 주민들. 아침에 일어나면 빈번한 일상 속 사망사건은 배고픔과 잘 못 캐먹은 나물로 인해 풀독으로 부풀어 오른 얼굴과 몸 자체는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 그 현실 속 우리가족 기둥같은 친정아빠의 사망으로 인해 집안은 슬픔에 슬픔이었다. 3형제와 언니, 가족까지 고난을 이겨내자고 애를 썼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현실 속은 나를 탈북의 길로 결심했고, 그 과정은 힘들었고 아차하면 빗물과 깊어진 물높이로 오빠가 날 업어서 건너주었고 그 시절 어린 나이 23살이었다. 그때 현재 남편을 만나서 집안 사정을 말하고 도움 요청도 하였다. 중국 친척 분들의 도움으로 푸짐한 쌀밥을 먹었는데 친정 아빠가 흰쌀밥 드시는게 소원이어서 현재도 흰쌀밥을 볼때마다 목이 메여지는 그아픔은 잊혀지지 않는다.

중국에서 5개월 살다가 다시 잡혀 고향에서 보위부 감옥으로 인솔되어 있는 동안은 너무 아픈 고통 이었고, 밤마다 울리는 고문과 억울한 비명소리는 감옥 좁은 공간마다 들렸고, 항상 소스라치는 그 심정은 감옥과 노동교화소의 9개월간 기억이 아직도 떠오른다. 아침 마다 눈을 뜨면 아픈 기억은 죽은 사람과 우리에게 인간 대접은 커녕 짐승 취급하고 발로 차 피터지고 고통스러운 기억밖에 없다.

감옥과 노동교화소에서 쉬지않고 일을 시켰고, 고문도 많이 받았다. 주는밥이라고 꼴랑 산나물 밥이라고 주면서 옥수수 몇알보이는 강낭밥이었고 그것도 풀독으로 인해 팔다리가 부었어도 힘들고 고된 노동력과 강도높은 규칙 때문에 다시 도주했다. 밤에도 제대로 폭 잔적도 없었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힘들다.

감옥에서 출소하고 두달만에 오빠와 엄마 고향을 뒤에 두고 탈북하였으며 다시는 안잡히려고 안쪽생활과 먼저 탈북한 오빠의 그 가정의 소문을 듣고 5살인 딸을 시댁에 맡기고 탈북하여 현재남편을 만났다. 남편의 지원으로 한국에 들어왔고 내가 태어난 내 고향은 아니지만 더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여기라면 내가 원한 공부와 내가 하고싶던 모든걸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 옛날 아픈 기억은 기억속에서 한 장 속 페이지로 남아 다시는 그런일 없이 잘 살아보고 싶다. OO에 정착해서는 앞을 보고 열심히 알바와 판매영업사원으로 일과 공부도 접했고 임신 중에 힘들었어도 돈버는 재미로 일을 했던 것 같다. 한국사회는 내가 하는것 만큼 내꺼고 내통장에 쌓여가는게 좋았고 뿌듯했다. 한국남편을 만나 아들 출산으로 몇 개월 쉬었지만 대학교수님 소개로 섬 어린이집도 다녔고 그때당시 18개월된 아장아장 걸음마하던 아이를 업고 5년을 다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격증 보단 학부모님들한테 더 효율적인 유아전문대 3년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다시 졸업했다.

함께라면

현재는 다리수술로 인해 쉬고 있다. 우리 사회가 노년층세대라 복지제도가 좋은관계로 여러가지 어르신들과 장애 인 복지 자격증 등을 온라인 학습도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또한 우리 전라남도 하 나센터가 잘 응용되어 여러 참관활동과 가족프로그램 덕분에 너무 행복하고 아들과 의 일상도 너무 즐겁다. 또 한편으로는 어서 통일이 되어 이 행복도 아직 두고 온 고향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언제쯤 내 일상의 변화와 꾸준한 도전과 완성되는 그날까지 쭉 계속 노력하고 싶다. 기독교 생활은 나의활력이며 그 분의 은혜로 내 삶도 바뀌면서 먼저 온 통일인 한사람으로서 더 노력하면서 잘 살 아보려고 한다. 감사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전남 정착 성공사례
수기공모전
작품집**